

史

한국
현대사
현대시

史와
詩



詩

강은진 · 노춘기 · 이경수
최호빈 · 하재연 · 신철규
김종훈 · 이상숙 · 이현승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주차별 학습 내용

| 주차 | 주차명 | 차시 | 차시명 |
|----|---|-----|--|
| 1 | 한국 현대사와 현대시 개관 | 1-1 | 한국 현대‘사(史)’와 현대‘시(詩)’ |
| | | 1-2 | 일제강점기 문단 상황과 시의 지향 |
| | | 1-3 | 해방기와 한국전쟁기의 한국 시문학 |
| | | 1-4 | 민주화의 열망과 민주혁명 - 1960년대~1980년대의 시 |
| | | 1-5 | 평화와 정의를 향하여 - 1990년대와 2000년대 이후의 시 |
| 2 | 3·1운동과 저항시 | 2-1 | 국권 상실과 한국인의 저항 |
| | | 2-2 | 3·1 운동의 전개와 의미 |
| | | 2-3 | 상처입은 개인을 위한 문학 |
| | | 2-4 | 궁핍한 시대의 시인 되기 |
| | | 2-5 | 프롤레타리아 문학과 민족 문학 |
| 3 | 식민지배의 강화와 전시동원체제 시기의 시적 대응 - 1930년대, 내밀한 저항의 시 정신 | 3-1 | 1930년대 시대 상황 |
| | | 3-2 | 정지용의 바다와 임화의 현해탄 |
| | | 3-3 | 한글운동과 백석의 언어 선택 |
| | | 3-4 | 이육사의 강철로 된 무지개 |
| | | 3-5 | 유이민의 발생과 이용악의 두만강 |
| | | 3-6 | 운동주의 참회록 |
| 4 | 해방기 한국시 - 환희와 혼란의 공존 | 4-1 | 빛을 되찾은 날의 환희 |
| | | 4-2 | 해방을 둘러싼 동상이몽 |
| | | 4-3 | 해방기의 문학단체와 문학운동 |
| | | 4-4 | 해방기의 3대 시집 - 『해방기념시집』, 『31 기념시집』, 『햇불』 |
| | | 4-5 | 회상과 반추 - 『청록집』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
| 5 | 한국전쟁 - 전선시, 실존주의 시 | 5-1 | 한국전쟁과 시인들 |
| | | 5-2 | 절망의 시 |
| | | 5-3 | 희망의 시 |
| | | 5-4 | 피란의 기록들 |
| | | 5-5 | 전쟁, 찬란한 현대성의 경험 |
| | | 5-6 | 살아남은 자의 슬픔 |

| 주차 | 주차명 | 차시 | 차시명 |
|----|--|------|---------------------------------|
| 6 | 4·19와 5·16 - 혁명시 | 6-1 | 4·19의 이념과 혁명의 결과 |
| | | 6-2 | 혁명의 좌절과 5·16 |
| | | 6-3 | 혁명의 고독과 김수영 |
| | | 6-4 | 자유와 추구의 사랑의 혁명 |
| | | 6-5 | 자주 평화의 염원과 신동엽 |
| 7 | 유신 체제와 근대화, 그리고 민중 - 1970년대 한국사의 흐름 | 7-1 | 유신 체제의 성립과 전개 |
| | | 7-2 | 반독재 투쟁과 민주문학의 탄생 |
| | | 7-3 | 산업화와 근대화의 그늘 |
| | | 7-4 | 전통적 감수성의 재발견과 도시적 감수성의 출현 |
| | | 7-5 | 정치적 알레고리와 유신 체제의 몰락 |
| 8 | 광주와 6월항쟁: 1980년대와 시의 시대 | 8-1 | 1980년대 광주와 시의 시대 |
| | | 8-2 | 오월문학과 노동시의 등장 |
| | | 8-3 | 현실에 응전하는 모더니티 |
| | | 8-4 | 3S 정책과 대중시의 유행 |
| | | 8-5 | 1980년대의 마감과 잔여 |
| 9 | 남북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 평화와 통일을 향한 염원의 시 | 9-1 | 남한과 북한의 분단과 통일 |
| | | 9-2 | 2000년 이전 통일에 대한 생각 |
| | | 9-3 | 2000년 남북공동선언과 통일시 |
| | | 9-4 | 2018년 판문점 선언과 통일시 |
| | | 9-5 | 평화와 통일 |
| 10 | 세월호와 시적 정의 | 10-1 |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4·16 세월호 참사〉 |
| | | 10-2 | 예기치 않은 사고, 예견된 참사 |
| | | 10-3 | 〈4·16 세월호 참사〉 보도의 문제와 시민 사회의 응전 |
| | | 10-4 | 세월호와 시적 정의 |

강좌 개요

강좌 개발의 필요성 및 적합성

본 강좌는 한국 문학사를 수놓은 시들을 한국 근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한국사와 한국문학, 한국학 전반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제고하고 학술적 수요에 부응하고자 기획되었다. 모든 예술 작품, 특히 문학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에 비유할 수 있다. 한국 언어 예술의 정수라 할 ‘시(詩)문학’을 당대의 역사적 현실과 함께 조망하는 이 강좌를 통해 수강생들은 문학과 사회의 관계, 나아가 문화예술의 역사적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강좌는 이러한 내용을 충실히 담아낸 한국 현대시 관련 강좌에 대한 전 세계적 수요에 부응하고자 계획, 개발되었다.

강좌의 학습목표

- 한국 근현대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시인의 작품 세계와 문학사의 흐름을 개괄적으로 파악한다.
- 시인과 시 작품의 관계를 그 배경이 되는 역사적 상황과 연관지어 파악한다.
- 한국문학, 한국사 등 한국학 전반으로 관심과 이해의 폭을 확장한다.

기대효과

본 강좌는 한국 근현대사상 기점이 되는 역사적 사건들과, 이러한 역사적 현실이 반영된 시 작품들을 다룬다. 특히 10인으로 구성된 교수진의 팀티칭 방식으로 진행되는 본 강의를 통해 수강생들은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이해와 함께 시문학에 대한 안목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1주차

한국 현대사와 현대시 개관

주차별 차시

| | 차시명 |
|-----|------------------------------------|
| 1차시 | 한국 현대‘사(史)’와 현대‘시(詩)’ |
| 2차시 | 일제강점기 문단 상황과 시의 지향 |
| 3차시 | 해방기와 한국전쟁기의 한국 시문학 |
| 4차시 | 민주화의 열망과 민주혁명 - 1960년대~1980년대의 시 |
| 5차시 | 평화와 정의를 향하여 - 1990년대와 2000년대 이후의 시 |

1차시 한국 현대‘사(史)’와 현대‘시(詩)’

학습 목표

- 한국의 역사와 시문학의 관계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 시문학의 기록적 특성과 증언으로서의 기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 현대사와 현대시> 강좌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과 개념을 알아보고,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문학이 어떻게 역사를 증언하고 역사는 또 어떻게 문학, 특히 시 속에서 재현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강좌의 제목인 ‘사(史)’와 ‘시(詩)’는 한국어로 아주 비슷한 글자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어 글자의 형태상의 유사성은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마치 역사와 시의 관계처럼 유사성과 이질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묘한 상관성을 암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역사는 문학을 통해 재현되고 문학은 역사를 통해 생동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문학사 속에서 역사를 증언하는 준엄한 문학들을 만나 왔습니다. 한국의 시는 고난과 투쟁의 역사를 증언해왔고 역사에 대응하는 수많은 개인들의 삶을 감동적으로 드러내 왔습니다.

역사는 본질적으로 개개인의 사적인 감정을 기록하지 않죠.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역사의 격랑을 개별자로서 어떻게 받아들였고 또 어떤 마음으로 당대를 살았는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남긴 문학 작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는 개인의 내면을 드러내는 일인칭 서정 장르이기 때문에 다른 문학 장르보다 감정과 정서라는 측면에서 시공간을 초월해 인간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경험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어 역사가 혁명의 객관적 사실을 거시적으로 서술한다면, 시는 혁명의 주체들이 혁명을 통해 느꼈던 그 때의 공기와 감정과 마음을 재현합니다. 시를 통해 우리는 100년 전의 청년들의 마음이 되어 볼 수도 있고, 그들과 함께 식민지 청년으로 살아가는 고통을 느낄 수도 있으며, 해방의 환희를 느껴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시가 가진 특별한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가 개인의 장르라고 해도 국가와 민족이 처한 현실이 급변하는 역사적 상황에 놓인 개인들은 개인의 사적 감정 속에 함몰될 수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의 시인들은 교

육 수준이 높은 엘리트 지식인층에 속했고 그들이 깊어져야 할 책무는 역사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웠습니다. 사랑을 노래하는 대신 혁명을 노래해야 했고, 봄날의 햇살을 찬미하는 대신 폐허와 죽음을 증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의 근현대사는 부침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극적인 해방을 맞았고, 한국 민족 최대의 비극인 한국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휴전이 되고 나서도 현재까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뉜 분단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국가를 재건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이했죠. 그리고 군사독재와 이에 대한 저항과 혁명 등 여러 혼란스러운 정치사들을 겪으며 민주주의 국가를 확립하고 오늘날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한국의 현대사의 거대한 흐름을 아주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변화의 역사는 불과 100년 남짓이라는 기간에 모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국 현대문학에서 중요한 역사적 기점으로 간주하는 3·1운동이 1919년의 일이었고, 가장 최근에 현대시 분야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세월호참사가 2014년의 일이었으니 이 두 사건의 시간적 간극으로만 따져도 거의 100년이 됩니다. 그만큼 한국 현대사가 극한 변화와 격동의 역사라는 방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역사적 사건은 지식인 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학 작품도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공통적인 경향성을 나타내게 되겠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한국의 현대문학사는 역사적 사건과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시기 구분을 합니다. 문학사의 시기 구분에 통일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기준에 따라 문학사의 시기를 나누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는 것인데요, 가장 단순한 시기 구분 방법은 10년 단위의 연대로 문학사를 기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그리고 2000년대 문학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10년 단위의 문학사 구분은 상당히 편리하게 한국 현대문학사 전반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10년 단위로 묶어서 설명할 수 있는 특성도 꽤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1930년대는 좌우 대립의 시문학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 제기도 꽤 있습니다. 10년 단위의 문학사 시대 구분은 실제 문학의 특성별 구분이 아니라 문학사 서술자 또는 연구자 편의적인 구분법이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타당한 지적이죠. 문학이 어떻게 10년마다 딱딱 규칙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할 수가 있겠어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 현대문학사를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나눈 시대 구분이 현재는 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다수의 학자들이 받아들이는 한국 현대시사의 시기 구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선 근대와 현대의 문제부터 볼까요? 한국 현대시문학 분야에서는 근대와 현대를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로는 둘 다 모던(modern)에 해당하기 때문에 혼란을 내재한 명명이라고 할 수 있죠. 혹자는 이 둘의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현대라는 명칭 속에 근대와 현대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도 많지만 한국 시문학 연구자들은 근대와 현대를 구분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이것은 문학 주체들의 인식, 그리고 미학에 있어서의 근대성과 현대성이라는 특성으로 발현된다고 보는데요, 이론은 분분하지만 공통적으로 근대라고 인정하는 시기, 현대로 인정하는 시기가 있고, 이 둘의 구분점에 대한 의견 차이가 많은 중간 지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근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현대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이에 대한 학설들이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한국 현대시문학사에서 근대는 최남선 시인이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최초의 신시를 쓴 1900년 전후부터 3·1운동 이전까지를 좁은 의미의 근대라고 보고, 넓은 의미의 근대는 1920년대와 30년대를 포함하거나 1945년 해방 전까지를 아주 넓게 근대라는 범위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 현대시의 기점을 1945년 해방으로 보는 견해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영미 모더니즘과 유럽 아방가르드 문학이 창작된 1930년대부터를 현대시의 기점으로 보는 견해도 팽배합니다. 이처럼 근대의 종점과 현대의 기점을 어디로 보는가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한국 현대문학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다 보면 시기가 겹치는 1930년대를 어떤 학자는 근대라고 하고 어떤 학자는 현대라고 하는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두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대가 언제 끝나고 현대가 언제 시작되었느냐는 사실상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기점으로 그 이전의 문학의 경향과는 확연히 변별되는 어떤 새로운 시문학의 경향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유의미한 시기로 구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1운동 이후 근대시 전개기, 일제강점기 현대시의 형성기, 해방기, 전쟁기 및 전후 시기, 민주화운동기, 산업화와 군부정권기, 민주혁명기, 탈냉전기, 그리고 세계화 시기. 이 시기 구분을 보면 역사적 전환점을 기점으로 문학사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시기 구분과 문학사의 시기 구분이 거의 유사하죠. 이것을 다시 유형화하면 3·1운동부터 해방기까지를 해방 전 시기로 묶을 수 있고, 해방 후부터 전쟁기와 전후 시기까지를 다른 하나의 시기로 묶고, 민주화운동에서 민주혁명기를 공통적인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냉전과 세계화 시기 이후를 묶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 기반의 한국 현대시사 시기 구분은 10년 단위 연대 구분법과 융합적으로 한국 현대시문학사를 서술하는 주요 방법으로 널리 상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 구분은 각각

시대적 특성을 구분짓게 되었던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3·1운동, 해방, 한국전쟁, 군사쿠데타, 혁명 등이 그 예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여러 사건 중 역사의 전환점이 된 것이 3·1운동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문학적으로도 중요한 기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한국 현대사사에서 3·1운동부터 해방 전까지는 근대시, 현대시를 전개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기점이 되는 것이 바로 1945년 해방입니다. 해방은 한 시대의 종언을 알리는 동시에 다른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건이죠. 한국 현대시는 해방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전쟁을 맞습니다. 국토가 초토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전쟁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은 한국 시에도 뚜렷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한국 전쟁기와 전후 재건기를 또 하나의 시기로 묶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1960년대로 넘어오면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4·19혁명, 5·16군사쿠데타, 유신, 광주민주화운동 등 한국 현대사에 한 획을 그을 만한 중요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이 시기는 외세와의 대립이 아니라 한국 사회 내부가 봉건적 정치제도에서 벗어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시민의 권리를 찾고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겪어야 했던 시행착오들의 시기였습니다. 한국시는 이러한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역사와 호흡을 같이 하며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냉전의 종식과 세계화라는 화두를 맞이하면서 또 한 번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른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관통하며 한국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이처럼 역사적 사건을 근간으로 한국 현대시사를 조망하는 일은 단순히 역사와 시가 어떤 연관성을 맺고 있는지 그 사실 관계를 일대일 직접 대응 방식으로 소개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에는 민족적 저항을 노래한 시들이 있었고, 군부정권 아래에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노래한 시들이 발표되었다. 이런 식의 일대일 단순 대응의 소개는 문학과 역사를 너무나 피상적으로 보는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시를 포함한 문학작품에는 우리가 시대성이라고 부르는 측면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문학사는 과거에 화석화되어 버린 유물이 아니라 시대와 더불어 계속해서 갱신하며 살아 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이 강의는 역사와 문학이 맺는 내적 연관에 주목하면서 한국 현대사의 전체적 흐름 속에서 문학의 맥락을 조망해보는 강의입니다.

아래 한국 현대시사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글입니다.

"문학사는 단순한 연대기적 사실의 나열이 아니다. 작품의 나열만도 아니며,

시인이나 작가들의 삶에 얽힌 주변적 이야기도 아니다. 작품과 작품을 통하여 드러나는 내적 연관성들을 천착해야 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시대를 포괄하는 시각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작품의 심미성과 시대성을 조응시키면서 한국사 전체의 흐름에서 그 맥락을 전망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문장에는 문학사,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문학사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드러나 있습니다. 작품들을 통해 드러나는 내적 연관성들을 깊이 탐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시대를 포괄하는 시각을 구축해야 한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죠.

문학 작품은 그 작품이 가진 심미성, 즉 미학적 특성만으로 가치가 매겨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시대성이죠. 작품의 심미성과 시대성의 조응을 통한 한국사 전체의 흐름 속에서 맥락을 파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와 문학의 내적 관련성을 바탕으로 한국 현대시를 탐구하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참고문헌】

- 김용직, 『해방기 한국 시문학사』, 민음사, 1989.
- 정인보 외, 『해방기념시집』, 중앙문화협회, 1945.
- 최동호, 『한국현대시사의 감각』, 고려대학교출판부, 2004.

2차시 일제강점기 문단 상황과 시의 지향

학습 목표

-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특수성을 파악할 수 있다.
- 범 모더니즘 계열과 리얼리즘 계열로 양분되었던 일제강점기 한국 문단의 대립 구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한국 현대사의 기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다소 견해차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역사적 시기로 볼 때 일제강점기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일제강점기의 한국 시문학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이 되는 주요 역사적 사실들을 먼저 살펴보고, 일제강점기 한국 문단의 흐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1910년에 한일병합, 즉 말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한국과 일본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것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게 이양한다는 내용의 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일본에 대한 한국의 오래된 부정적 인식과 한일 양국의 불편한 관계는 사실 더 오래 전,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전으로 올라가지만, 한국 현대사에서 한일 양국의 복잡한 관계는 이 식민지 시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제시대, 혹은 일본식민지시기라고 부르지 않고 한국에서는 이 시기를 일제강점기라고 지칭하는 것도 일본에 의한 강제적인 통치권 박탈이라는 점을 강조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국주의 일본에 의한 강제 식민지를 상징하는 건물이 바로 조선총독부입니다. 조선총독부는 식민통치와 수탈을 관장하는 본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문학 작품에 많이 등장하죠.

조선총독부는 실제 담당했던 역할도 그러했지만 일본의 식민통치와 압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국권을 박탈당한 한국인은 일제의 노골적인 수탈과 민족 말살 통치에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표면화된 사건이 바로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3·1운동입니다.

3·1운동은 한국의 왕이었던 고종황제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과, 그 사망의 원인이 일본의 독살 때문이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민심이 급격히 동요한 것이 배경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안 그래도 악화될 대로 악화되고 있었던 반일감정이 더욱 고조되었던 것이죠.

3·1운동은 비폭력 만세운동이었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이 3·1운동의 대표적인 장면인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3·1운동은 충동적으로 일어났던 단발성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국내외 조직적 준비 과정과 전개가 바탕이 되었고 3월 1일 대대적인 만세운동이 벌어진 이후에도 한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강도도 규모도 점점 커졌습니다.

한국인에게 3·1운동은 한국인의 저항 정신의 상징이자 자부심으로 기억되는 역사입니다. 3·1운동이 아니라 3·1혁명으로 불러야 한다는 논의도 일어나고 있죠. 3·1운동이 한국의 독립을 직접적으로 가져오지는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결과만 놓고 보면 표면적으로는 실패한 운동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민중 주체의 저력과 근대적 자각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한국인들에게 매우 특별합니다.

한국현대사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3·1운동을 시문학 변화의 중요한 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항의 문학, 근대적 주체성 자각, 죄책감과 시대적 책무감 등 3·1운동 이전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특징들이 한국 시문학에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비폭력 평화운동이었던 3·1운동을 일본은 무자비하게 진압했고, 비무장한 군중들을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많은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관순이라는 인물은 3·1운동을 대표하는 상징이자 한국인들의 저항정신을 가장 숭고하게 드러낸 인물로 지금까지 대다수의 한국인들의 숭앙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유관순은 3·1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가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서도 독립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녀의 나이 불과 17살 때의 일입니다. 유관순은 감옥에서 일본 경찰의 고문과 영양실조로 18살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17세 소녀의 목숨을 건 저항과 죽음. 3·1운동의 저항정신이 유관순이라는 인물로 상징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열사라는 칭호를 붙여 유관순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3·1운동과 유관순 열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3·1운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거센 역사의 파고 속에 있어야 했던 한국 문인들은 시대적 책무와 애국의 사명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당시의 시들을 보면 그 뜨거운 결기와 의지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가 사랑의 세레나데가 되기에 역사는 너무나 가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문학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3·1운동 이후 한국 시단에는 많은 동인지들이 대거 등장하였고 작기충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시는 크게 세 갈래의 흐름을 보입니다. 첫째는 자유시 창작, 둘째는 신문, 잡지 등을 통한 작품 발표, 셋째는 작가층의 확대가 그것입니다.

먼저 자유시 중심의 시 창작은 3·1운동 이전까지 다양하게 존재했던 시가의 형태들이 정리되면서 자유시 중심의 창작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1운동이 근대 주체의 근대성 자각을 가져왔다는 사실이 이러한 시문학의 변화를 통해서도 드러나죠. 3·1운동 이전의 다양한 시가 형식의 등장이 근대 주체들의 근대시 모색의 과정이었다면, 3·1운동 이후의 자유시는 근대적 형태로 시문학이 정착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문과 잡지 등을 통한 작품 발표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쇄 매체의 발달이라는 배경에서 가능했습니다. 1920년대와 30년대 한국 문단은 아주 많은 문학 잡지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시문학사의 이름 있는 문예 잡지들이 이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창조』, 『백조』, 『폐허』 등이 1920년대에 만들어진 대표적 문예 잡지들입니다.

그런데 일제의 검열이나 경제적 문제 등으로 지속되는 잡지보다는 단기 발간으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잡지를 발간하면서 문학 작품을 발표하고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지면의 증가는 작가층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근대적 교육을 받은 엘리트 지식인들이 문학 창작의 주를 이루었는데, 이들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작가도 증가하였습니다.

한국 시문학사에서 현재까지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많은 시인들이 1920년대와 30년대에 등장했습니다. 김소월, 김억, 한용운, 이육사, 이상화, 박종화 등이 1920년대 한국 시를 대표하는 시인들로 꼽힙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910년대부터 1919년 3·1운동 이전까지는 일본 유학생 중심의 종합 학술잡지 『학지광』, 문예 중심 주간 신문 『태서문예신보』가 대표적입니다. 이 잡지와 신문을 중심으로 해외 유학과 문인과 지식인들이 외국의 문예 이론과 작품을 많이 소개했습니다.

3·1운동 이후에는 민족의 주체적 활동이 대폭 증가한 모습을 문단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조선어연구회가 조직되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창간됩니다. 이 두 신문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많은 동인 문예지들이 생겨납니다. ‘동인(同人)’이란 비슷한 지향을 가진 문인들이 모인 일종의 문학창작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인들이 모여 문예 잡지

를 발간하는 일이 이 시기에 활발했던 것입니다. 『창조』, 『백조』, 『폐허』 외에도 『장미촌』, 『금성』, 『영대』, 『조선문단』 등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수의 잡지가 창간되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 중 하나는 가장 아래에 있는 계급주의 문학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 근대시의 전개기라고 할 수 있는 1920년대의 시 문단은 크게 세 갈래 정도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는 식민지의 현실에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을 표명했던 행동주의 문학, 당시에는 새로운 경향의 문학이라고 해서 신경향주의문학이라고도 불렀고 그 사상적 배경이 되는 계급주의 또는 사회주의의 이름을 따서 사회주의 문학, 계급주의 문학, 또는 프롤레타리아 문학, 줄여서 프로문학으로 불렸습니다. 이름이 참 많죠. 큰 범주로 보면 이러한 현실주의 조류가 리얼리즘 사조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흐름은 낭만주의적 경향입니다. 한국의 낭만주의는 프랑스 상징주의의 유입으로 나타난 몽환적이고 비애의 정서가 짙은 일군의 시작품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낭만주의 시는 현실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던 프로시와는 너무나도 다른 성격을 지녔습니다. 정반대에 가까운 이러한 시적 경향의 대립은 해방 전까지 한국 시문학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전통지향성, 즉 민요시 창작이었는데요,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에 한국의 전통율격을 추구하는 흐름으로 맞선 것이었습니다.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는 논의와 함께 전통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이러한 상반된 경향의 공존.

어찌 보면 참 흥미로운 측면이 있죠. 당시에는 시조 부흥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1920년대부터 1930년대 그리고 해방 전까지 한국의 시문학은 크게 범 모더니즘 계열과 리얼리즘 계열로 양분되어 대립 구도를 형성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제가 범 모더니즘 계열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작은 문예사조나 유파들이 크게 보아 리얼리즘에 대립하는 이분법적 구도를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고전주의, 낭만주의, 상징주의, 초현실주의 등 조금씩 다른 시문학의 경향들은 리얼리즘과는 선명하게 다른 지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범 모더니즘 계열로 편입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프랑스 상징주의 사조의 영향 아래 낭만주의, 그리고 전통주의를 기반으로 한 민족주의 계열 등이 문학의 정치성을 배격하고 순수한 문학 그 자체를 지향하고자 했던 움직임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적 지향을 순수문학이라고 부릅니다.

‘순수’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에는 문학 외적인 것, 즉 정치, 이념, 사회, 현실 등을 모

두 배격하고 문학 그 자체의 미학을 추구한다는 반정치적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문예사조적으로 모더니즘 계열 문학이라고 부릅니다. 당시에든 그렇고 지금도 그러한데요 순수문학과 모더니즘 문학을 거의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와는 달리 마르크스주의를 수용하면서 이것이 급진적 민족주의, 세계 지향성의 인터내셔널리즘과 결합하여 발전한 것이 바로 계급주의문학 혹은 사회주의 문학입니다.

문학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을 넘어 현실을 타개하고 미래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계급주의문학의 근간입니다. 이러한 계급주의문학은 문예사조적으로는 리얼리즘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의 근대문학을 양분했던 이 두 경향의 대립 구도는 그 이후까지도 이어져 현재까지도 그 잔여가 남아 있습니다. 문학의 순수성을 추구했던 순수문학, 즉 모더니즘 문학 계열과 행동주의 문학을 표방했던 계급문학, 즉 리얼리즘 계열 문학은 지향의 차이가 너무나 뚜렷해서 극단의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순수문학은 계급문학을 정치적이며 불순하다고 비난했고, 계급주의문학은 순수문학이 현실도피적이라고 비난했죠. 해방 전까지 한국의 문단은 이 두 계열로 이합집산하며 아주 역동적인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순수문학은 ‘문학이 무엇인가?’하는 문학의 본질에 더 깊이 탐닉했고, 프로문학은 ‘문학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하는 문학의 역할론에 집중했다는 점입니다.

1930년대는 한국 모더니즘 문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시기였습니다. 또한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계급문학, 즉 프로문학의 입지가 위태로워지자 활로를 찾기 위한 치열한 모색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제의 탄압이 고조되면서 집단적, 조직적 활동이 막히자 다양한 소그룹 중심의 동인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시기가 바로 1930년대입니다.

1920년대에 이어서 1930년대도 다양한 동인지들과 문예지들이 창간되고 또 종간되었습니다. 『시문학』, 『삼사문학』, 『시인부락』, 『단충』 등의 동인지들이 있었고, 문학 전문 잡지 외에도 종합교양잡지나 신문에도 문학란의 비중이 컸습니다. 이들 매체를 통해 많은 문인들이 작품을 발표하고 문학 담론을 생산해냈던 시기가 1930년대입니다.

이들은 순수문학을 지향했던 프로문학을 지향했던 모두 현실에 대한 자각과 문학의 역할에 대해 치열하게 고뇌했습니다. 그 치열하고 뜨거웠던 문학의 장이 1930년대 한국의 문단이었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를 한국 문학사상 가장 뜨거웠던 시기이며 목숨을 걸고 문학을 했던 시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참고문헌】

- 김윤식 외,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 2014.
- 오세영 외, 『한국현대시사』, 민음사, 2007.
- 최동호, 『한국현대시사의 감각』,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

3차시 해방기와 전쟁기의 한국 시문학

학습 목표

- 해방기, 전쟁기, 전후 재건기의 특징과 역사적 의의를 파악할 수 있다.
- 해방기문단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이를 추동한 한국 시문학사의 독자적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전쟁기 및 전후 한국시의 실존주의적 경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를 벗어나 국권을 회복한 한국이 맞이할 운명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해방기와 한국전쟁기, 그리고 전후 재건기의 역사적 상황과 한국 시문학의 흐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었던 기간은 1910년 한일병합으로부터 1945년 해방이 되기까지 약 35년이었습니다. 만일 1910년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서른다섯 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나라를 되찾게 되는 셈이죠.

실제 일제강점기와 해방기에 활동했던 많은 한국의 시인들은 일제강점기 직전, 혹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일본어로 교육을 받고 일본어로 글을 쓰는 데 익숙했습니다. 당연히 일본어로 된 문학 작품을 써서 발표하는 것이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1937년 일본은 중일전쟁을 기점으로 침략 전쟁을 본격화합니다. 전쟁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 물품을 한국에서 조달했고, 민족말살 통치와 각종 수탈은 극에 달했습니다. 한국어에 대한 탄압도 당연히 거세어졌습니다. 일본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이른바 국어상용운동을 벌였는데요, 여기서 국어란 한국어가 아니라 일본어를 의미합니다.

언어 말살의 근거가 된 것이 바로 내선일체(內鮮一體)사상이었는데요, 내선일체란 일본과 조선, 즉 한국이죠. 이 두 나라는 일체, 하나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각각의 정체성을 가지고 평등하게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적인 것을 없애고 한국의 모든 것을 일본처럼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내선일체 정책이었습니다. 내선일체정책은 한국의 인적, 물적 자원의 수탈을 정당화하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한민족 말살 정책과 탄압 정책이 1930년대 말부터 1940년대에 들어서 더욱 심해집니다. 이러한 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친일로 돌아선 지식인들이 이때 대거 나타났습니다. 친일 인사들은 한국의 독립 이후 '친일파'로 불리며 한국민족의 지탄을 받게 됩니

다. 친일 청산의 문제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입니다. 광복 또는 해방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독립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함으로써 달성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해방은 일제의 가혹한 식민통치에 고통을 받았던 한국 민족에게 큰 환희와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뛰어나와 마음껏 만세를 부르며 해방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이 기쁨과 환희를 시인들은 시에 담아냈습니다. 좌익이건 우익이건, 모더니즘 계열이건 리얼리즘 계열이건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마음껏 한국어로 시를 쓰고, 쓰고 싶은 글을 쓰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직후부터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이전까지의 기간을 한국 문학사에서는 ‘해방기’라고 부릅니다. 5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해방기는 탈식민을 맞이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들이 사회 각계에서 한꺼번에 터져 나왔던 시기였습니다.

해방을 맞은 한국 문단도 아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금지되었던 집회들이 활발하게 열렸고, 해방 직후부터 문인 세력들을 규합한 조직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시기의 한국 문단은 다양한 의견과 세력들이 폭발적으로 표출되었던, 마치 용광로와 같은 상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왔었으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말, 쓰고 싶은 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을까요? 시인들도 다시 펜을 들어 한국어로 된 시들을 창작했고, 그동안 발표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던 시들을 모아 시집을 출간하는 등 한국 시단에도 들뜬 활기가 넘쳤습니다. 또한 프로문학가 임화 시인 등을 중심으로 분열되었던 세력을 규합해 하나의 통일된 민족문학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도도 감행했습니다. 어떤 정치적 지향을 가지고 있었던 간에 해방기 문단의 공통된 목표와 화두는 바로 민족문학 건설이었습니다. 해방기 한국 문인들에게는 좌익과 우익의 대립을 넘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학을 건설하고자 하는 열의가 강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들에게 또 다른 시련을 안겨 주었습니다. 미·소 냉전체제 아래 한국도 극심한 정치적 분열 상황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이 분열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한국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영향으로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게 됩니다.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났지만 한국이 자주적 통치를 하지 못한 채 미국과 소련의 점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한국의 북쪽에는 소련군이 주둔하고 남쪽에는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분단의 서막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사적 비극은 문인들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군의 점령 아래 있었던 남한에서는 공산당에 대한 탄압이 심해졌고, 각자의 이념과 지향에 따라 월북을 택

한 문인들도 상당수였습니다. 해방기에 월북한 문인들은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대부분 남한으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해방기에 미군이 주둔했던 땅입니다. 일제강점기 문단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문학의 순수성을 중시하고 이념 편향을 경계했던 순수문학, 즉 모더니즘 계열의 문인들은 남한에 남았고 사회주의를 지향했던 리얼리즘 계열의 문인들은 월북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정치적 이념만으로 월북을 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향이 북쪽에 있기 때문에 월북했던 문인들도 있었고, 강제로 끌려간 문인들도 있었습니다. 강제로 북한으로 끌려간 경우를 월북(越北)과 구분지어 납북(拉北)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남한, 대한민국은 순수문학 계열의 정통성을 이어온 셈이 됩니다.

정치체제가 극한 대립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남한에서는 월북 문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남한 정부는 월북 문인과 납북 문인들에 대해 연구하거나 그들의 작품을 읽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모더니즘 계열 시인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월북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지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월북 문인 금지로 인해 남한에서는 월북, 납북 문인들의 작품은 커녕 이름을 거론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월북 문인에 대한 금지조치가 해제되어 지금은 월북 문인들의 작품을 읽고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중고등학생들의 교과서에도 월북 문인들의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남한 정부는 이 조치를 ‘월북 문인의 해방 이전 작품 공식 해금 조치’라는 이름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지용, 김기림, 백석, 이용악, 오장환, 임화. 이런 사람들은 한국 시문학사에서 빛나는 성취를 이룩한 시인들이었는데요. 바로 이때 해금된 문인들입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시인들입니다. 이들의 작품을 마음 놓고 볼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당연한 일을 다행이라고 여기게 만든 역사적 비극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해방기에 이미 남북 분단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같은 나라에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섰으니 전쟁의 위협이 고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한을 기습 공격하면서 시작된 한국전쟁은 1953년 한반도 휴전협정체결까지 3년에 걸쳐 한반도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한국전쟁을 동족상잔의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이고 싸운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의 내적 갈등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을 위시한 강대국들의 힘겨루기와 이권 다툼으로 촉발되었던 전쟁 때문에 한국 국민들이 희생되고 한국의 국토가 무참히 파괴된 것입니다.

해방을 한국의 자력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한 결과로 얻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해방 후 한국은 강대국들의 분할 점령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 5년 후 전쟁의

참화를 겪게 된 것입니다. 처절한 전쟁의 기록은 역사 자료에도 남아 있지만, 전쟁이 개인의 삶을 얼마나 끔찍한 고통과 비극으로 몰고 가는지 한국전쟁기의 시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들에 전쟁의 참상이 드러나 있고, 사람들이 겪었던 끔찍한 고통이 생생한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지훈, 전봉건, 전봉래, 김종삼, 서정주, 조병화, 김구용 등이 한국전쟁기에 시 작품을 남겼던 대표적인 시인들입니다. 한국전쟁기의 시들에 전쟁의 참상과 비극만이 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꽃이 피어나듯이, 전쟁의 참화 속에서 시인들은 희망을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절망 속에도 희망의 씨앗은 항상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시기에 사람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이산, 즉 피난이었습니다. 피난은 전쟁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죠. 사람들은 전쟁의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다른 곳에 잠시 머무르기 위해 일시적으로 자신의 거주지를 떠났습니다. 전쟁이 갑작스럽게 시작된 데다 전쟁 초기에 남한이 무기력하게 밀렸기 때문에 남한 주민들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 속절없이 남쪽으로, 남쪽으로 황급히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가족들이 헤어져 서로 생사를 알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수천 명의 피난민 행렬이 남한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한국 국토 남쪽 끝에는 오늘날 국제영화제로 유명해진 도시 부산이 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간 피난민들이 더 내려갈 곳이 없어 부산에 많이 모이게 되고 피난민촌이 형성되면서 각 지방의 문화가 혼재되는 독특한 현상을 빚기도 했습니다. 끔찍한 전쟁 체험과 이산의 경험은 한국 시문학에 실존의 문제를 던졌습니다. 시를 통해 '인간이란 무엇이며, 삶이란 무엇인가'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전쟁이 끝난 후 폐허가 된 땅에는 가난과 기아가 한국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이며, 산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굶주림을 이기기 위해 또 폐허가 되어버린 삶의 터전을 복구하기 위해 한국인들은 또 다시 현실과 싸워야 했습니다. 삶과 죽음 그리고 가난과 기아의 문제는 전쟁기와 전후 시기의 한국시들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조지훈 시인은 한국전쟁 발발 다음날인 1950년 6월 26일 고려대학교 강의실에서 시론 강의를 하다가 총성을 들었던 상황을 「절망의 일기」라는 시에 묘사했습니다. 시에는 "불안과 존재의 의미를 너 오늘에야 알리라"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누구의 말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전쟁이 가져다 준 인간 실존 문제를 각성하게 하는 내면의 목소리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쟁은 존재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죽음이 아무렇지도 않게 인간들을 휩쓸

고 지나가는 참화. 인간이 만들어놓은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인간이 영위하던 삶을 빼앗아가는 이 무자비한 전쟁의 상황에서 시는 존재의 의미에 천착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에서 시인은 또 "시가 전운 속으로 숨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피비린내나는 전쟁의 상황에서 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는 무기도 될 수 없고, 음식도 될 수 없습니다. 시인은 이 불안을 시가 전쟁의 먹구름 속으로 숨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한국전쟁을 겪은 시인들은 시를 통해 전쟁의 참상과 폭력성을 고발하고, 인간의 실존에 대해 각성하였으며, 폐허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사람은 수백만 명이 넘었고, 남한이 입은 물적 피해액은 약 4000억 원이 넘었는데요. 이 금액은 당시 한국의 연간 국민총생산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액수였습니다. 경제적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1953년 휴전협정 체결부터 1959년까지를 전후 재건기 혹은 전후 복구기라고 부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궁핍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1950년대는 전쟁을 치르고 전쟁의 폐허를 재건하는 데에 바쳐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산업화와 민주화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 고난을 극복하고 일어섰던 저력으로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시련이 클수록 극복의 의지도 더 강렬해져 왔다는 것을 이 시기의 시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문헌】

- 김윤식 외,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 2014.
- 오세영 외, 『한국현대시사』, 민음사, 2007.
- 조지훈, 『조지훈 전집 1- 시』, 나남출판, 1997.
- 최동호, 『한국현대시사의 감각』, 고려대학교출판부, 2004.

4차시 민주화의 열망과 민중혁명 - 1960년대~1980년대의 시

학습 목표

-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분출된 4·19 혁명으로부터 5·16, 12·12 쿠데타로 이어지는 한국 현대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 주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당대의 현실 및 그 대응이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난 한국 시 작품들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정치사적 격동기라고 할 수 있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의 역사적 상황과 시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1960년대는 4·19혁명으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19년의 3·1운동이 식민지 아래의 민족 해방이라는 시대사적 명제의 표출이었다면 1960년의 4·19혁명은 시민사회를 정착시키고 부당한 권력의 종말을 선언하는 역사적 전환의 순간이었다. 이 말은 3·1운동의 정신에 견준 4·19혁명의 의의입니다.

4·19혁명은 전후 재건기에 있었던 정치권의 부정부패와 독재에 대한 항거로서 촉발된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불법 개헌을 통해 무려 12년간 장기 집권했습니다. 투표함 바꿔치기나 득표수 조작, 공개 투표 등 낯 뜨거운 부정선거를 자행했고, 이에 반발하는 민중들과 언론을 무자비한 폭력으로 탄압했습니다. 4·19혁명을 주도한 민중들이 내건 구호는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1인 독재 타도, 3·15 부정선거 규탄이었습니다.

3·15 선거는 당시 집권당이었던 자유당에 의하여 자행된 대대적인 부정선거였습니다. 1959년 이승만이 불출마선언을 반복하고, 4선 출마를 표명하면서 자유당 정권은 이승만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당연히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거세졌고 곳곳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선거 당일인 3월 15일 저녁 경상남도 마산 지역에서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시민들의 분노가 터져 나오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김주열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김주열은 마산에 시험을 치르기 위해 갔다가 시위에 합류하였고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 그는 마산 앞바다에서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은폐될 뻔했던 사건이었지만 한 사진기자의

순발력과 기지로 이 사진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최루탄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경찰이 발포하는 최루액이 담긴 도구인데요. 구토와 눈물, 매우 심한 눈의 통증 등을 유발하는 물질이 들어 있어 시위를 진압하는 데에 많이 사용됩니다. 원래는 최루제라고 부르는 것이 맞지만, 최루제를 발사할 때 일종의 총처럼 생긴 발사기에 넣어 방아쇠를 당겨 발사하는데요. 그 소리도 크고 직접 맞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폭탄과 같다고 해서 최루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할 때는 사람을 향해 직접 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중을 향해 발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주열의 눈에 최루탄이 박혔다는 것은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이 시민들을 향해 거의 직선으로 발포했다는 뜻입니다. 마치 총을 쏘듯이요. 시위대를 직접 겨냥하지 않으면 그런 각도로 최루탄이 박힐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비한 자유당 정권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처참하게 희생된 고등학생의 모습에 사람들은 들불처럼 일어섰습니다. 시민들의 거센 시위를 자유당 정권은 더 큰 폭력으로 진압했죠.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았고 시위대도 무장하며 총격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결코 사그라들지 않았던 시민들의 분노와 저항 앞에 결국 이승만이 4월 26일 하야를 발표하며 자유당 정권은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15일 제2공화국이 출범했습니다. 4·19혁명은 부정부패에 항거하여 시민들의 힘으로 독재정권을 끌어내린 민주주의 시민 혁명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의 상흔에 고통받고 있었지만 대한민국 시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뭉쳤고 행동으로 그 열망을 실현시켰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4·19혁명의 결과로 출범한 제2공화국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해인 1961년 5월 16일 대한민국의 역사를 또 한 번 크게 뒤흔든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5·16 군사 쿠데타입니다. 5·16 군사 쿠데타는 박정희를 필두로 한 군부 세력이 정권을 탈취한 사건입니다. 동원된 군 인력만 수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들 군부세력은 4·19 이후의 정치적 혼란과 불안정을 전시에 준하는 위험 상황으로 보고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것입니다. 5·16 군사 쿠데타의 주동 인물은 박정희입니다. 박정희는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제5대 그리고 제6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됩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세력은 정당성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사정권은 반정부 세력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반공 정책을 펼쳤고 반정부 세력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탄압했습니다.

1960년 대의 한국 시는 혁명의 열망과 그에 대한 좌절이 동시에 드러납니다. 대표적인 시인이 김수영입니다. 김수영 시인은 혁명의 시인이자 사랑의 시인이라고 불립니다. 혁명과 사랑. 이 두 단어는 얼핏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혁명의 깊은 심연에는 사랑이라는

동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김수영 시인은 시에서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과 혁명의 희열, 그리고 혁명이 꿈꾸었던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고, 한편으로는 좌절된 혁명과 그 속의 개인이 느껴야 했던 치욕을 담아내는 데 매우 탁월했습니다.

김수영 시인은 「푸른 하늘을」이라는 시에서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가,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 왜 고독해야 하는 것인가" 묻습니다. 아마 당시 많은 시인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유는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로써 쟁취해야 한다는 것을 한국이 겪어온 시련의 역사를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4·19혁명은 한국 시문학사에 이른바 참여시라는 시 경향을 탄생시켰습니다. 참여시는 시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현실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현실 변혁과 비판의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주장된 것이었습니다. 즉, 시의 역할론에 중점을 둔 시각입니다.

한국 시문학사에서 1920년대와 30년대에 걸쳐 나타났던 카프시와 같은 극단적인 계급주의 지향의 시문학과는 달리, 1960년대와 70년대의 참여시는 이념이나 주장을 노골적으로 제시하던 관념성에서 한 발 물러나 미학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인간의 구체적 삶과 권리에 집중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시의 현실 참여를 주장했던 참여시의 반대편에는 시의 미학적 순수성을 현실 참여보다 더 중시했던 입장이 있었습니다.

참여시와 순수시.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1960년대와 70년대는 참여시라는 현실 지향의 시적 경향과 순수시라는 미학적 추구 경향이 공존했습니다. 카프를 중심으로 한 이념지향적 시와 문학의 순수성을 추구했던 순수시가 대립했던 1920년대, 30년대의 한국 시문학의 상황과 유사한 면이 있죠.

그러나 극한 충돌과 대립이었다기 보다는 상반된 두 경향이 한국시의 방향성과 역할을 두고 벌였던 모색과 탐색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참여와 순수의 공존을 이분법적 대립구도로 파악하는 편 가르기 시각은 사실상 이념 대립 역사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1960년대 시는 참여와 순수의 대립으로만 설명될 수 없습니다. 한편에서는 한국 현대사가 이념 대립으로 얼마나 큰 혼란과 희생을 치러왔는지에 대한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적 실험을 통해 시의 영역을 확장했던 것도 1960년대입니다. 김춘수와 『현대시』 동인들은 내면탐구와 형식 실험을 통해 언어의 가능성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감으로써 한국 현대시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김춘수의 무의미시, 이승훈의 비대상시 등은 이 시기에 등장한 인식론적 시 경향이었습니다.

이처럼 1960년대 한국 시단은 시문학의 다양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던 시기였으며 형

식 실험을 통한 모색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제5대 대통령에 이어 제6대 대통령에 재선되었습니다. 제3공화국 헌법에는 대통령을 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당시 상대 후보가 김대중이었는데, 김대중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박정희를 위협할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7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열어보니 박정희가 김대중을 가까스로 누르고 당선되었지만 부정선거 의혹과 반발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었죠. 박정희는 당선 후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1972년 10월 유신헌법입니다. 이를 10월 유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유신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낡은 것을 새롭게 고친다는 것이지만, 박정희 정권이 단행한 유신개헌은 박정희의 독재정치와 장기집권을 위한 것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강화한 반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제도입니다. 대통령 직선제와 중임제한도 없애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악법이죠.

박정희는 간선제로 바뀐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제8대 그리고 제9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유신헌법 반대 운동이 더욱 거세게 일어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국가 주도의 산업화로 국가 전체의 부는 증대되었지만 노동 착취, 노동 탄압, 빈부 격차 등이 심화되면서 국민의 삶은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군사독재의 폭압과 부정부패가 극심해질수록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도 더욱 커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사독재 정권의 폭정 아래 신음하던 1970년대 한국시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민중의식의 성장을 기반으로 한 민중시의 등장이 1970년대 한국 시문학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1970년대에 유행하기 시작한 민중시와 리얼리즘시는 1970년대 민족문학론의 발전 개념으로 나타난 민중문학의 한 장르로, 1960년대의 참여시를 새로운 양상으로 정립한 형태였습니다.

대표적인 민중시인으로는 김지하와 신경림을 들 수 있습니다. 김지하의 「오적」과 신경림의 「농무」는 군사독재 정권의 부정부패를 풍자적 기법으로 고발하고, 민중의 삶의 애환을 사실적으로 그렸습니다. 1970년대 민중시는 이처럼 시를 통해 독재정권을 고발하고 부조리에 저항하는 현실 극복의지를 드러냈으며, 민중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리면서도 미적 질서를 획득하여 한국 현대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은 1979년 갑자기 막을 내립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10·26 사건 또는 박정희 대통령 피격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대통령의 사망으로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쳐 10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취임 한 달 남짓 지난 12월 12일 전두환을 중심으로 군부 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실권을 장악합니다. 이 군부세력을 5·16 군부 세력과 구별해 신군부라고 부릅니다. 신군부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저항은 1980년 5월 학생들의 시위로 본격화됩니다. 이에 전두환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동원하여 반대 세력을 무자비하게 진압합니다. 계엄령 선포 다음날인 5월 18일 공수부대는 광주시민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총을 발포합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국민들을 향해 총을 쏘고 곤봉을 휘두르고 잔혹하게 고문과 폭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시민들도 시민군을 조직하여 계엄군과 맞섰습니다. 지금도 광주의 여러 곳에는 헬기에서 그리고 시가에서 계엄군이 발포했던 총알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언론 통제로 이러한 무자비한 사태가 알려지지도 않았으나, 한 외국인 기자의 목숨을 건 취재 덕분에 당시의 사진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잔혹한 장면에 저도 한동안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 무고한 희생을 발판 삼아 전두환은 대통령이 됩니다.

1980년대에 활동한 시인들은 5·18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시인은 시대적 현실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1980년대의 시는 내용적인 면에서 민중지향적인 성격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양식적인 측면에서는 해체적이고 저항적인 성격을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박노해, 백무산, 김남주, 김사인, 김정환, 이은봉 등이 바로 1980년대 민중지향적 또는 현실성 지향적 시를 썼던 시인들입니다. 독재 타도의 목소리와 자본주의의 문제를 고발하는 현실성 지향의 시들이 가장 크게 목소리를 내었던 시기가 바로 1980년대였습니다.

이 밖에도 현대성을 지향하는 시와 예술성을 지향하는 시들도 1980년대를 시의 시대로 부상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1980년대는 많은 청년들을 시인으로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시를 읽는 시대였습니다. 가장 가혹한 폭력의 시대에 시가 이토록 풍성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김남주 시인은 「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오월을 노래하지 말아라」라는 시에서,

"노래하지 말아라, 오월을. 바람에 일어서는 풀잎으로. 풀잎의 학살에 저항하는 피의 전투에는 어울리지 않는 시의 어법이다, 피의 학살과 무기의 저항 그 사이에는 서정이 들어설 가지라 없다, 자격도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서정의 어법으로 오월을 노래하는 것이 시인에게는 건디기 어려운 것이었던가 봅니다. 피의 학살과 저항의 전투 상황에서 서정이란 얼마나 무기력하고 허위적인 것으로 느껴졌을까요? 시대의 요청 앞에 시는 총이 되고 칼이 되고 고발장이 되고 때로는 위로의 손길도 되어야 해야 했을 것입니다. 1980년대의 한국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참고문헌】

- 김윤식 외,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 2014.
- 염무웅·임홍배 엮음, 『김남주 시전집』, 창비, 2014.
- 오세영 외, 『한국현대시사』, 민음사, 2007.
- 이영준 편, 『김수영 전집 1』, 민음사, 2018.
- 최동호, 『한국현대시사의 감각』,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

5차시 평화와 정의를 향하여 - 1990년대와 2000년대 이후의 시

학습 목표

- 1980년대 한국 사회의 민주화 과정과 1990년대 이후의 사회적 흐름을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 2000년대 전후로부터 현재까지의 남북 관계를 통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주요 사건과 그 시적 반응을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 ‘미학의 정치성’ 개념을 중심으로 시와 정치, 나아가 문학과 정치,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이후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과 시문학의 흐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민주화 시위를 탄압했습니다. 그럴수록 대학생들 중심으로 민중들의 시위는 더욱 거세어졌습니다. 1980년대 한국의 대학가 거리에는 민주화 시위로 인한 화염병과 최루탄이 난무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서울대 박종철 학생이 치안본부 대공분실 수사관들에게 잔인하게 물고문을 받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신군부는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였지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군부는 사건의 진위를 조작하여 축소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직도 유명한 ‘책상을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라는 말을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이 같은 기만적 행위는 당시 중앙대 병원 의사였던 오연상의 증언으로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국민들은 엄청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이 사건은 6·10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6·10항쟁을 6월 항쟁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시기에 많은 대학생들이 목숨을 잃거나 고문으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2017년 개봉한 영화 <1987>은 바로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거대한 독재 권력을 무너뜨리는 민중들의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정의로운 힘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6월 항쟁은 민주주의 이념과 제도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고 한국의 시민운동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6월 민주항쟁 이후 전두환의 군사 독재 정권은 종언을 맞았고, 박정희에 의해 폐지되었던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16일 치러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많은 희생을 치르고 군

사독재를 끝냈지만, 혁명의 중심 세력이었던 민주 진영이 통합을 이뤄내지 못하는 바람에 다시 신군부 출신의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집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 한국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며 전쟁의 폐허를 빠른 시간에 극복하고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음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란 한국전쟁 이후 이루어진 한국의 초고속 성장과 경제발전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고속 성장의 이면에 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희생이 뒤따랐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국이 오늘날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계기는 김대중 정부에 이르러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은 박정희 정권과 신군부 정권에서 투옥, 납치, 살해기도, 가택 연금 등 모진 정치적 탄압을 받았으나 1997년 결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 기간 문화 융성 정책 마련 등 오늘날의 대한민국 발전의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고, 인권 향상과 남북 관계 진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특히, 남한과 북한의 정상이 분단 이후 처음 만났던 2000년 6월 15일의 남북 공동선언은 의미가 깊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한국전쟁 그리고 분단을 거쳐 전쟁의 위기 속에 서로를 적대시 해왔던 남북한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정치사적 의미를 넘어 가슴 뭉클할 정도의 감격을 불러일으킵니다.

독재정권의 종식, 마침내 찾아온 민주주의, 그리고 분단 극복 및 남북통일에 대한 기대. 1990년대의 한국 시는 오랫동안 짊어져왔던 역사와 시대의 사명을 조금 내려놓고 집단성에서 개인성으로, 정치성에서 개인의 실존과 문화적 경험으로 탈바꿈합니다. 특히 개인의 문화적 삶에 대한 관심이 새로운 문학적 탐구 주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죽음과 소멸에 대한 천착, 도시적 일상성의 탐구, 몸의 시학, 여성주의의 시학, 생태학적 상상력과 사이버 세계에 대한 관심 등 미디어 환경과 문화의 변화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시적 체험이 한국 시단을 다채롭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2000년대 역사는 고졸 인권변호사 출신인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키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퇴임 후 차기 정부의 무리한 보복 수사와 뇌물 스캔들로 얼룩졌고 2009년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정치사적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은 뇌물수수, 횡령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퇴임 후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였습니다. 차기 대통령이었던 박근혜는 메르스 사태, 세월호 참사 등 국가적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비선 정치 문제가 불거진 이후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어 2017년 탄핵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탄핵 대통령이라는 명예와 불명예를 동시에 안게 된 것입니다.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박근혜 정부에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단체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과 승객 476명을 태우고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전라남도 진도군 앞바다에서 침몰해 304명이 사망한 대참사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난사고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부재와 무책임, 사고 이후의 부적절한 대응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21세기 대한민국사회에 가장 큰 파장을 불러온 참사였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사망자 304명 중 단원고 학생은 무려 20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저 역시 그 장면을 뉴스로 지켜보았던 충격을 잊지 못합니다. 그 많은 학생들과 승객들이 서서히 수장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그 충격을 어떻게 말로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이었지만 그 감정은 곧 분노가 되었습니다. 사고 원인, 구조 과정, 사고 후 수습 등 모든 국면에서 기본적인 것조차 지켜지지 않았고 사회 안전망과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바다 깊이 가라앉아 있던 세월호는 2017년 박근혜가 파면된 후에야 비로소 인양되어 3년 만에 다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국가 권력이 국민의 삶을 비극으로 몰고 갈 때나 역사가 개인을 나락으로 밀어 넣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더 단단하게 뭉쳐 작디작은 힘들을 모아 거센 물결을 만들곤 했습니다. 세월호 트라우마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한국 국민들은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이 집단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사회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지금도 그 노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문인들이 주축되어 세월호가 침몰한 시각에 맞춰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열리고 있는 304 낭독회입니다. 304는 세월호 희생자 수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저도 2017년 11월 304 낭독회에 낭독자로 참여해 시를 낭독했었는데요. 시작할 때는 맑았던 날씨가 침몰시각에 맞춰 낭독회를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져 내려 모두가 숙연해졌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문인들이 추모와 공감과 치유를 위해 나섰습니다. 세월호 추모시집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가 가장 먼저 간행되었고, 시인들이 단원고 희생자 학생들의 심정이 되어 쓴 생일시 모음집 『엄마. 나야.』, 3주기 추모시집 『꽃으로 돌아오라』 등의 세월호 추모시집이 간행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추모시집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세월호 추모 단독 시집 『내 고통은 바닷속 한 방울의 공기도 되지 못했네』를 출간한 방민호 시인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으며 슬픔과 원한, 죄책감과 절망감에 시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슬픔, 분노, 죄책감, 절망감. 이러한 감정들은 세월호 참사를 목도한 한국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것이었지만 시인들은 이것을 시로 기록하고 증언하고 공감하며 극복해야 할 또 다른 시대적 책무가 있습니다.

식민통치에 저항하고, 독재정권에 항거하던 시의 역사적 책무는 2000년 이후 시를 통한 미학적 정치성 또는 감각적 연대라는 새로운 형태로 형성됩니다. 2000년대 한국 시단에 벌어졌던 시의 정치성 논쟁은 미학적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시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자 국민의 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제시된 시의 정치성은 미학적 정치성 또는 시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조화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시와 정치가 서로 개입해 서는 안 되는 영역인 것처럼 여기지 않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구호가 되었던 시, 정치적 이념의 불모가 되었던 시가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고비마다 그 역사를 증언하고 재현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감과 연대를 가능하게 했던 것도 시였다는 사실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2000년대 한국 시단에서 제기된 시의 정치성 담론의 주요 토대론이 되었던 자크 랑시에르의 ‘감각적인 것의 분배’라는 철학적 개념은 문학과 예술의 정치성은 본질적으로 언제나 미학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에 따르면 예술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 문제가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본질적으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감각적 경험들에 해당하는 말과 글을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하는가 하는 문제는 지극히 정치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일제가 식민통치 말기에 한국의 언어와 문학을 통제하고 말살하려 했는지, 그리고 군사독재 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언론과 민중의 눈과 귀를 가리려 했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다시 처음의 이야기를 상기해볼까요? 시는 역사를 증언하고 역사는 시를 통해 생생하게 재현됩니다. 술한 시련에 처했으나 그 고비마다 민중의 힘으로 일어서 고난을 극복해왔던 한국 현대사는 한국 시문학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강좌를 통해 한국 현대사와 함께 생동해온 한국 현대시의 뜨겁고 역동적인 세계와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문헌】

- 김윤식 외,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 2014.
- 오세영 외, 『한국현대시사』, 민음사, 2007.
- 최동호, 『한국현대시사의 감각』,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

Lecture

1차시 한국 현대‘사(史)’와 현대‘시(詩)’

Hello, my name is Kang Ŭn-jin and my lecture is going to be an overview on modern Korean history and modern Korean poetry today. In this lecture, we will dive into the knowledge and concept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modern history and poetry of Korea. We will also examine how literature bears witness to historical events, particularly those significant to modern Korean history. Furthermore, we will investigate how history is represented in literature, especially in poetry. The title of this lecture, "Sa (history) and Si (poetry)," features two Korean characters that are very similar in appearance. While the similarity between the shapes of these characters may be coincidental, It gives us a feeling that they are subtly correlated, much like the relationship between history and poetry, while possessing both similarity and heterogeneity at the same time. History is reproduced through literature, and literature breathes life into history. We have encountered many respected works of literature in Korea that bear witness to history. Korean poetry has testified to the struggles and hardships of history and revealed the lives of countless individuals who have reacted to history in their unique ways.

Essentially, history does not record the personal emotions of individuals. Within the vast flow of history, individuals who lived through its tumultuous upheavals coped with it as individuals, but we can gain insight into their emotions and mindset by examining the literature they have left behind. Particularly, poetry, as a first-person lyrical genre, transcends time and space in terms of emotions and sentiments, providing us with experiences that allow human beings to meet and connect with each other. For example, while history objectively describes the macroscopic facts of a revolution, poetry reproduces the atmosphere, emotions, and sentiments that the revolution's participants felt at the time. Through poetry, we gain access to hearts of

young people from 100 years ago, feel the pain of living as colonial youth with them, and even experience the joy of liberation. This is the special power of poetry.

However, even though poetry is an individual genre, individuals who were placed in a rapidly changing historical situation in which their country and people found themselves could not be submerged solely in their own personal emotions. Korean poets belonged to the elite intellectual class with a high level of education, and the burden they had to bear was as heavy as the weight of history itself. They had to sing about revolution instead of love and bear witness to ruins and death instead of praising the sunshine of spring.

As is well known, modern Korean history can be described as a turbulent one. After experiencing a dramatic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Korea had to undergo the greatest tragedy of its people, the Korean War, and has since been divided into North and South Korea: the situation that persists even today. South Korea faced a critical challenge of rebuilding its nation on the ruins of war. While experiencing many tumultuous political events such as military dictatorship, resistance, and revolution, it established a democratic state and has achieved remarkable development at a very rapid pace.

I have briefly mentioned the vast flow of modern Korean history, but all of these changes took place in a period of only about 100 years. The March 1st Movement, considered a significant historical milestone in modern Korean literature, occurred in 1919. The Sewol Ferry Disaster, which can be regarded as an event that had a great influence on modern poetry, happened in 2014, so the temporal gap between these two events is almost 100 years. This demonstrates that modern Korean history is a testimony to extreme changes and upheavals.

Historical events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lives of intellectual poets, and literary works tend to exhibit common tendencies during specific historical periods. Therefore, in general, modern Korean literary history is divided into periods based on its close relationship with historical events.

There is no unified criterion for dividing literary history into periods. Scholars divide literary history into periods and assign names to them based on slightly different criteria. One can attribute several key characteristics to the span of a decade. In other words, Korean modern literature is classified by decades, such as the 1920s, 30s, 40s, and 2000s. The ten-year system is quite convenient for summarizing the entire history of Korean modern literature. It also exhibits some characteristics that can be explained within the span of a decade. For example, the 1930s were characterized by left-right confrontation in poetry. However, there are considerable issues with this system. Dividing literary history into decades is a convenient method for the scholars or researchers of literary history and may not reflect the actual characteristics of literature. It is a valid point of criticism that literature cannot change significantly every ten years according to a strict rule. Based on such concerns, dividing the history of Korean modern literature into periods centered around historical events is more widely accepted today.

In this lecture, I will first introduce the periodization of Korean modern poetry that is accepted by most scholars, albeit with some minor differences. Let's start with the distinction between modern and contemporary periods. In the field of Korean modern poetry, it is common to distinguish between modernity and contemporaneity. In English, both "kūndae (modernity)" and "hyōndae (contemporaneity)" can be referred to as "modern," which creates inherent confusion in their classification. Some argue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wo is meaningless, while others include both in the term "modern."

However, Korean literary researchers are familiar with distinguishing between "kūndae (modernity)" and "hyōndae (contemporaneity)", which is manifested in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ity and contemporaneity in the perception and aesthetics of literary subjects.

While theories vary, there are commonly accepted time periods for what is considered modern and contemporary, there are some grey areas with diverging opinions regarding the dividing line between the two. So, when did

modernity begin and end, and when did contemporary literature begin?

There are many theories about this. Generally, in Korean modern literary history, the modern period is viewed narrowly as the period from around 1900 when poet Ch'oe Nam-sŏn wrote the first new poem, "From the Sea to the Boy (Hae egesŏ sonyŏn ege)," to just before the March 1st Movement.

The broad understanding of modern period includes the 1920s and 30s, or even up to just before the liberation in 1945. While the prevailing view in Korean modern literature is that the beginning of contemporary literature was in 1945 after liberation, there is also a contending view that the contemporary literature began in 1930s after Korea's liberation, when Anglo-American modernism and European avant-garde literature were introduced and adopted in Korean literature. Due to the difference of opinion regarding the endpoint of modernity and the starting point of contemporary literature, When studying Korean modern literature or reading related books, one may encounter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categorizing the time period of the 1930s. Some scholars classify it as modern, while others categorize it as contemporary. Despite this disagreement, both categorizations can be considered valid in their own right. The question of when modernity ended and contemporary era began may not be a significant issue. This is the method used to classify the periods of Korean contemporary literature based on historical turning points. The periods are: the development of modern poetry before and during the March 1st Movement, the formation of modern poetry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the liberation period, the war and postwar period,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period of industrialization and military dictatorship, the people's revolution period, the post-cold war period, and the era of globalization. This periodization indicates that literary history is divided based on historical turning points. The division of periods in Korean contemporary history and literary history is quite similar. If we break it down again, we can group from the March 1st Movement to the liberation as the pre-liberation period, and the war and postwar period as the post-liberation period.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he people's revolution period can be categorized under a same category, and finally, the post-cold war and globalization periods can be grouped together. This

periodization of political events is widely used as a primary method to describe the literary history of Korean modern poetry, which is combined with a decade-based chronological division.

This periodization distinguishe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era based on historical events such as the March 1st Movement, the liberation, the Korean War, the military coup, and the revolution. Among the various events from the Japanese occupation, the March 1st Movement was a turning point in history that had significance in both history and literature. From the March 1st Movement to the pre-liberation period, modern and contemporary poetry has been developed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Another critical turning point is the liberation in 1945, which signifies the end of the earlier era and the beginning of the new one. Korean modern poetry entered a new phase with the advent of liberation.

Next, it faced the Korean War, which caused widespread destruction and loss of countless life and the whole nation. The Korean War brought about clear changes in Korean poetry, so there is no disagreement in grouping it with the period of post-war reconstruction. Moving into the 1960s, significant events such as the April Revolution, May 16th military coup, Yusin regime, and the K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occurred amidst political turmoil in Korea's modern history. This era was not a confrontation with external forces, but rather a time when Korea had to go through trials and errors to overcome authoritarian political system to achieve democracy and civil liberties. Korean poetry has gone through significant changes during these tumultuous times in history.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in the 1990s and the era of globalization, Korean poetry entered a new phase, which is often referred to as the postmodern era.

Viewing Korean modern history through the lens of these historical events is not simply a matter of presenting a direct correspondence between history and poetry. For instanc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re were poets who sang about national resistance, while others wrote about democratic and freedom-related themes under the military regime. However, presenting these correspondences in a one-to-one, superficial manner fails

to grasp the full scop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iterature and history. Literary works, including poetry, often contain a strong aspect of what we call *zeitgeist*. Literary history is not a collection of fossilized remains of the past. Rather, it is like a living organism that constantly renews itself with the times. This lecture explores the context of literature while paying attention to the internal connection between history and literature, within the overall flow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The quote being presented here is an excellent description of how we should view the history of Korean poetry from which perspective. Let me read it:

"Literary history is not a mere collection of chronological facts or works, nor is it about peripheral stories of the lives of poets or writers. Instead, we must seek out the potential internal connections that are revealed through works and through them, establish a comprehensive perspective that encompasses the times. We must examine the flow of Korean history in its entirety, while aligning the aesthetic sensibility and preoccupation of the era of the works."

This sentence reveals a deep insight into the perspective we should take when examining literary history, particularly in regards to poetry. It highlights the need to explore the potential internal connections revealed through literary works, and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perspective that encompasses the times. The aesthetic sensibility of literary works cannot be solely judged by their artistic features, but rather, the preoccupation of the era is crucial. Understanding the context of literary works in the overall flow of Korean history through the alignment of aesthetic sensibility and preoccupation of the era is essential to exploring Korean contemporary poetry based on the internal relationship between history and literature.

2차시 일제강점기 문단 상황과 시의 지향

While there may be differing opinions on when the beginning of modern Korean poetry should be dated, it is true that it is closely related to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historically speaking. In this lecture, we will first examine the major historical facts that form the background for understanding Korean poetry literatur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n look into the flow of Korean literature during this time.

In 1910, Korea was annexed by Japan. but in reality, Korea's sovereignty was handed over to Japan through a treaty that included the transfer of Korea's ruling power to Japan, making Korea a colony of Japan. Korea's negative perception of Japan and the uncomfortabl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actually dates back much earlier, to the Chosŏn Dynasty, but the complicated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modern Korean history is rooted in this colonial period.

Generally, this period is referred to as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or the period of Japanese imperial rule, but in Korea, it is called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domination by force, emphasizing the fact that Korea's sovereignty was forcibly taken away by Japan. The Governor-General's Office, which symbolizes imperial Japan's forced colonization, is a building that played a central role in colonial rule and exploitation.

Literary works set against the backdrop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bound. The Governor-General's Office, in addition to its actual role, was also a symbol of Japanese colonial rule and oppression, making it a frequent feature in literature of the time. Koreans, whose national sovereignty had been deprived, harbored great resentment toward Japan's blatant plundering and oppressive governance, and this sentiment came to the surface in the March 1st Movement of 1919.

One of the main factors contributed to the outbreak of the March 1st

Movement was the sudden death of Emperor Kojong of Korea. As rumors spread that the cause of his death was being poisoned by Japan, it served as one of the backgrounds for the rapid upheaval of public opinion. The already heightened anti-Japanese sentiment was further intensified.

As seen in the photograph, the March 1st Movement was a non-violent, peaceful protest. It is evident from the iconic scene of people holding the Korean national flag, T'aegükki, and shouting "Long live Korean independence". However, the March 1st Movement was not an impulsive, one-time protest. It was based on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organized preparation and development. After the large-scale demonstration on March 1st, the movement spread throughout Korea, becoming more intense and widespread in both its strength and scale.

To Koreans, the March 1st Movement is remembered as a symbol of resistance and pride in the Korean spirit. Some argue that it should be called the March 1st Revolution. While the March 1st Movement did not directly bring about Korea's independence, viewed solely in terms of its outcome, it could be considered a failed movement. Nevertheless, the movement holds a special significance for Koreans in that it demonstrated the power of the people's agency and modern consciousness.

In modern Korean poetry history, the March 1st Movement is regarded as an important turning point in the transformation of Korean poetry, in that there are distinctive features that distinguish it from pre-March 1st poetry literature, such as literature of resistance, modern self-awareness, feelings of guilt and a sense of historical responsibility. Despite the nonviolent nature of the March 1st Movement, Japan ruthlessly suppressed it, shooting unarmed crowds and causing many innocent casualties.

Yu Kwan-sun is a symbol representing the 3.1 Movement and is the person who most nobly demonstrated the resistance spirit of the Korean people, earning her the admiration of the majority of Koreans. She was a key participant in the 3·1 Movement, but was arrested by Japanese police and imprisoned, where she continued to lead independence movements. This all occurred when she was just 17 years old. Yu Kwan-sun faced torture and

malnourishment from Japanese police, eventually dying at the age of 18. Her sacrifice and resistance at such a young age of 17, represent the spirit of the 3·1 Movement, with Yu Gwan-sun being a symbol of this spirit. In Korea, she is remembered as a martyr, or "yŏlsa" in Korean, and the 3·1 Movement and Yu Kwan-sun are inextricably linked. The photograph of Yu Kwan-sun that exists today depict her when she was imprisoned. Her face is swollen from torture, and her sad expression evokes sympathy from viewers. To Koreans, her image represents the painful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and the tragedy of a young girl sacrificed on the brutal history. In a digital application, a Korean netizen used technology to restore a virtual image of Yu Kwan-sun, which gathered a lot of attention. Yu Kwan-sun is depicted smiling brightly, She looks younger and vivacious. How do you feel about this ordinary looking version of Yu Kwan-sun? There were even Koreans who shed tears because of this picture.

We have examined its significance of the March 1st Movement so far. At that time, Korean writers, who had to withstand the rough waves of history, were burdened with a sense of historical duty and patriotism. Looking at the poems of that time, one can get a vivid sense of their determination and will. The reality was too cruel and urgent for poetry to function as a medium of love songs. However, Korean poetry did not stop but rather burned more intensely. After the March 1st Movement, many literary coterie magazines emerged in the Korean literary world, and the number of writers grew exponentially.

The poetry of this period can be seen as having three main currents: free poetry creation, publication of works through newspapers and magazines, and the expansion of the writers.

First, the advent of free poetry means a transition from the various forms of poetry that had existed before the March 1st Movement. The fact that the March 1st Movement brought about a modern sense of subject and self-consciousness is evident through this change in poetry. If the various forms of poetry that existed before the March 1st Movement were a process of searching for modern poetry by modern subjects, then the free poetry

created after the March 1st Movement shows that modern poetry was established in a modern form.

The second stream is the publication of works through newspapers and magazines. This change was possible because of the backdrop of the development of printing media. In the 1920s and 30s, many literary magazines appeared in the Korean literary world and then disappeared. Famous literary magazines were created during this time, such as <Ch'angjo (Creation)>, <Paekcho (White Tide)>, and <P'yehŏ (Ruins)>, in the 1920s.

However, many publications had short runs due to censorship by the Japanese government and economic problems. Nevertheless, they continued to publish magazines and make efforts to publish literary works and create a forum for public discourse. This increase in literary publications led to the increase of the writers. Elite intellectuals who received modern education were the mainstay of literary creation, and as their number increased, so did the number of writers.

Many poets who are still important in Korean literary history even today emerged in the 1920s and 30s, including Kim So-wŏl, Kim Ŏk, Han Yong-un, Yi Yuk-sa, Yi Sang-hwa, and Pak Chong-hwa. These poets are regarded as representative poets of Korean poetry in the 1920s. Let's take a closer look at some specific examples.

In the 1910s and prior to the March 1st Movement of 1919, the comprehensive academic journal centered around Korean students studying in Japan, <Hak chi kwang (The Light of Study)>, and the literary weekly newspaper, <T'aesŏ Munye Sinbo>, were representative.

Based on these journals and newspapers, overseas Korean writers and intellectuals introduced many foreign literary theories and works in Korea. After the March 1st Movement, we can see a significant increase in nationalistic activities in the literary world. The Korean Language Research Society was organized, and the newspapers, Chosun Ilbo and Dong-A Ilbo, were founded. These two newspapers are still in circulation, and many literary coterie magazines were established with the formation of literary

groups known as "tongin."

It can be said that "tongin" was a literary creation group where writers with similar interests gathered. During this time, there was a significant amount of activity publishing literary magazines by "tongin" groups. In addition to <Ch'angjo (Creation)>, <Paekcho (White Tide)>, and <P'yehŏ (Ruins)>, which you saw earlier, many other magazines were established, including <Changmich'on>, <Kŭmsŏng>, <Yŏngdae>, <Chosŏn Mundan>, and so on.

A vast number of literary journals were established to the point that it was difficult to list all of them. One noteworthy point here is the emergence of class-conscious literature devoting to the strata of society. The development of Korean modern poetry in the 1920s can be broadly categorized into three trends: The first is activism literature, which demonstrated active interest and action towards the reality of colonialism. the new tendency literature, which was called "sin kyŏnghyang" literature, and socialistic literature, which was named after the ideology of socialism, also called class-conscious literature or proletarian literature, abbreviated as Pro-literature. As you can see, there are many names for it. In broad categories, these realist tendencies continued into the realism school.

The second trend is the romantic tendency. Korean romanticism stressed the dreamy and melancholic emotions. They were influenced by the French symbolism. Romantic poetry was too different from proletaria poetry, which showed active interest towards reality. This opposition between two opposite poetic tendencies became one of the biggest characteristics of Korean poetry until the liberation. The last trend that can be considered is the tradition-oriented tendency, namely, the creation of "minyo" poetry. It was a trend that stood against Japan's policy of cultural assimilation, pursuing Korea's traditional metric.

This coexistence of conflicting tendencies, one advocating a return to tradition and the other embracing modernity, is a very interesting aspect. At that time, there was even a debate about the revival of "sijo". Anyway, from the 1920s to the 1930s and until the pre-liberation era, Korean poetry was

largely divided into two opposing trends, the broad modernist and realism trends.

I use the term broad modernist trend because small literary schools or factions formed a binary opposition to realism. Classicism, romanticism, symbolism, and surrealism, which had slightly different tendencies in poetry, were included in the broad modernist trend because they had a clearly different orientation from realism.

To summarize, under the influence of French Symbolism, movements such as Romanticism and Nationalism based on tradition developed into movements that rejected the political aspects of literature and aimed for pure literature itself. This poetic direction is called pure literature, which contains a message of anti-politics, rejecting everything outside of literature itself, such as politics, ideology, society, and reality, in pursuit of the aesthetics of literature. This is called modernist literature within the literary genre. At that time, as well as now, pure literature and modernist literature are almost considered synonymous. However, while accepting Marxism, some developed poetry of radical nationalism, and combined it with internationalism. This group of literature is called class-conscious literature or socialist literature.

The foundation of class-conscious literature is the belief that literature can become a driving force to change the future, that goes beyond reflecting reality in literature. Such class-conscious literature progressed in the literary genre as realism. The opposition between these two trends that divided Korean modern literature continued after the 1930s and its remnants persist to this day.

Pure literature, or modernist literature, which pursued the purity of literature itself, and the class literature, or realism literature, which advocated for literature with a social purpose, continued to be in extreme opposition due to their distinct orientations. Pure literature condemned class-conscious literature as political and impure, while class-conscious literature criticized pure literature as escapist.

Until the liberation, Korean literature was marked by the convergence of

these two streams, which created a very dynamic flow. One difference between the two is that pure literature delved more deeply into the essence of literature, asking "what is literature?", while class-conscious literature focused on the role of literature, asking "what should literature do?"

The 1930s was a period in which Korean modernist literature developed in earnest, and it was also a time of intense search for opportunities as the position of class-conscious literature, or proletarian literature, was endangered by ruthless Japanese oppression. As the Japanese oppression intensified and group-oriented, organized activities were blocked, the 1930s witnessed a flourishing of various literary circles centered on small literary coterie.

In addition to the 1920s, various literary magazines and journals were founded and closed down in the 1930s as well. There were various literary coterie magazines such as <Si munhak>, <Samsa Munhak>, <Siin purak>, and <Tanch'ŭng> in addition to comprehensive cultural magazines and newspapers that had a significant literary section. Through these media, many writers published their works and produced literary discourse during the 1930s. Whether they aspired to pure literature or class-conscious literature, they all passionately struggled with the recognition of reality and the role of literature.

The 1930s were the most fervent period in Korean literary history, during which writers devoted their lives to literature. Therefore, some call it the hottest period of Korean literary history, and a time when writers risked their lives for literature.

3차시 해방기와 전쟁기의 한국 시문학

What fate awaited Korea after it gained independence from Japanese colonial rule? In this session, we will look at the historical situations of the liberation period, Korean War period, and the postwar reconstruction period, and the flow of Korean poetry.

Korea was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for about 35 years, from the annexation of Korea by Japan in 1910 until its liberation in 1945. If someone were born in 1910, it would've taken them 35 years when Korea was liberated. Many Korean poets who worked during the colonial period were born just before or during the colonial period and were educated in Japanese and were familiar with writing in Japanese. So, it wasn't strange for them to write and publish literary works in Japanese. In 1937, Japan intensified its aggression war starting with the Second Sino-Japanese War. Japan procured human resources, funds, and the goods from Korea it needed for the war. Its oppression and exploitation of Koreans reached their peak. The suppression of the Korean language also became intense. Japan conducted the so-called "national language promotion movement" to punish those who used the Korean language, but the term "national language" here refers to Japanese, not Korean.

The basis for the language oppression was the "naesŏn ilch'e", meaning "Japanese homeland and Korea as one body". The term "naesŏn" means Japan and Chosŏn, Korea and "ilch'e" refers to the fact that they are one body and inseparable. However, rather than having Japan and Korea coexist with their own identities, the "naesŏn ilch'e" aimed to erase everything Korean and turning everything Korean into Japanese. The policy of "naesŏn ilch'e" was also a means to justify the exploitation of Korea's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Thus, Japan's policy of ethnic repression intensified from the late 1930s to the 1940s.

Many intellectuals who could not withstand such repression turned to pro-Japanese activities at this time. Pro-Japanese figures were later known as "pro-Japanese collaborators (ch'inilp'a)" after Korea's independence and received criticism from the Korean people. The issue of purging pro-Japanese collaborators remains unresolved even after liberation.

Korea's independence, also known as "kwangbok" or liberation, was achieved when Japan was defeated in World War II. The unexpected liberation brought great joy and relief to the Korean people who had suffered under Japan's harsh colonial rule. People ran out into the streets and cheered in the euphoria of liberation. Poets captured this joy and relief in their poetry, regardless of their political views or literary style. For them, being able to freely write in Korean, to write what they wanted to write, and to speak freely must have been an immense joy.

The period from the immediate aftermath of liberation on August 15, 1945, to the start of the Korean War on June 25, 1950, is referred to as the "liberation period" in Korean literary history. The short period of less than five years was a time of tremendous energy in all aspects of Korean society to determine the direction that Korea should take as a newly liberated country. The Korean literary community was also very active, with previously banned rallies being held and organizations being formed to bring together literary figures since the immediate aftermath of liberation. During this period, the Korean literary world could be described as an explosion of various opinions and forces, like a blast furnace. After being suppressed for so long, how many things did they want to say, write, and do? Poets also picked up their pens again and created poems in Korean, and published collections of poems that they had not been able to publish before.

As such, the Korean poetry world was filled with energy. Efforts were also made to unite the divided factions, led by proletarian literary figures such as the poet Im Hwa, to move towards a unified national literature. Regardless of their political orientation, the common goal and topic of the literary world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was to construct a national literature. Korean writers during this period were enthusiastic about building a new era and new

literature beyond the confrontation between left and right.

However, history brought them another ordeal. Korea was also forced to face political division under the US–Soviet Cold War system. The entire Korean society had to face this division and the country was divided into North and South Korea under the influence of the powers surrounding it. Although Korea had escaped from Japanese colonial rule, it was occupied by the US and the Soviet Union. The division of Korea began with the Soviet Army stationed in the north and the US Army stationed in the south along the 38th parallel.

This picture shows the situation during the post–liberation period when the US and Soviet armies occupied the south and north of Korea, respectively. After the Korean War armistice, the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in the sou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in the north, and the division was finalized. This political tragedy also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lives of Korean writers. In South Korea, under US occupation, there was a harsh suppression of the Communist Party, and many intellectuals chose to go north according to their ideology. And many of those who moved to North after liberation were unable to return south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e current Republic of Korea is the land where the US military was stationed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Looking back to the colonial period, pure literature that emphasized the purity of literature and was wary of ideological bias, that is, the modernist–oriented writers, remained in the south, while the writers of the realism–oriented, socialist literature went north. However, not all writers chose to go north based solely on political ideology. Some writers went north because their hometown was located there, and some were forcibly taken. The term "napbuk" refers to cases in which individuals were forcibly taken to North Korea, as opposed to "wölbuk," in which they defected voluntarily. Therefore we could say that South Korea or the Republic of Korea carried on the tradition of pure literature. As the political system became extremely polarized, South Korea sought to deny the existence of "wölbuk" writers altogeth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rohibited research on or reading

of the works of "wölbuk" and "napbuk" writers. Despite being modernist poets, some were banned simply because they defected to North Korea. Due to the ban, it was difficult to even mention their names in South Korea. However, following the 1988 Seoul Olympics, the ban on those writers was lifted, and it is now possible to study and read their works. Recently, works by "wölbuk" writers have even been included in textbooks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officially announced this measure as the "Official Declassification of Wölbuk Writers' Pre-liberation Works." Chöng Chi-yong, Kim Ki-rim, Paek Sök, Yi Yong-ak, O Chang-hwan, and Im Hwa. These individuals were accomplished poets in Korean literary history, and they were the writers who were released from the ban. They are poets that I also particularly admire. While it is fortunate that their works can now be read without hesitation, I also feel regretful about the historical tragedy that made such a simple act a cause for relief. As previously mentioned, the divis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had already begun during the post-liberation period. With two different governments within the same country, the threat of war was inevitable.

On June 25, 1950, North Korea launched a surprise attack on South Korea, initiating the Korean War, which lasted for three years until the signing of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in 1953, leaving the Korean peninsula in ruins. Koreans refer to the Korean War as a tragedy of fratricidal strife, a war where members of the same ethnic group killed each other. The war was not caused by internal conflicts within Korea, but rather sparked by a power struggle and conflicting interests among the major powers,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The Korean people suffered their lives and their land was ruthlessly destroyed as a result of this war. Because Korea did not achieve liberation through its own power, but rather as a result of Japan's surrender to the Allied powers, After liberation, Korea became a target of occupation and division by the major powers, which eventually led to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five years later.

The records of the cruel war are still preserved in historical documents, but the poems of the Korean War era bear witness to how the war brought unspeakable suffering and tragedy to individual lives. Many poems reveal the

horrors of war and the terrible suffering experienced by the people in vivid language. Representative poets who left works on the Korean War include Cho Chi-hun, Chŏn Pong-gŏn, Chŏn Pong-rae, Kim Chong-sam, Sŏ Chŏng-ju, Cho Pyŏng-hwa, Kim Ku-yong, and so on.

During the Korean War era, poetry was not only about the horrors and tragedies of war. Like flowers blooming in pain, poets also sang of hope amidst the devastation. Even in the depths of despair, there was always a seed of hope. However, what made people even more miserable during this time was the massive displacement caused by the war, known as "displacement."

"Evacuation (p'inan)" refers to the act of moving to a different area to avoid war or conflict. People temporarily left their homes to avoid the threat of war until it disappeared. Due to the sudden outbreak of war and the initial weakness of South Korea in the battles, South Korean residents had to evacuate rapidly southward to avoid death. In the process, many families were separated and put in situations where they did not know if their loved ones were alive or dead. Thousands of refugees marched throughout South Korea, gathering in the city of Pusan, which is now famous for its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s the refugees headed south, many of them gathered in Pusan because there was nowhere else to go. This led to the formation of refugee villages where the cultures of different regions blended together, creating a unique phenomenon.

The experience of the war and displacement challenged Korean poetry literature to confront existential questions about what it means to be human and what life is. The poverty and famine that awaited the Korean people in the post-war ruins added to the struggle of existence. Korean literature raised questions about what it means to exist as a human being and what it means to live.

To overcome famine and rebuild the ruins of life, Koreans had to fight with reality once again. The issues of life and death, poverty and hunger were fully reflected in the poetry of Korean writers during and after the war. The poet Cho Chi-hun described in his poem "Diary of Despair" the situation of

being in a lecture hall at Korea University on June 26, 1950, the day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and hearing gunshots. The poem contains the quote "You will only know the meaning of anxiety and existence today." Although the speaker of the quote is not specified, this line may be an inner voice that awakens us to the human existential problem that the war has brought.

War prompts contemplation on the meaning of existence. The tragedy of war sweeps through humanity without discrimination. In the merciless circumstances of war, which destroy everything humans have created and strip them of their way of life, poetry encourages to contemplate on the meaning of existence. In the same poem, the poet states that "poetry hides in the clouds of war." In the midst of the bloody stench of war, what can poetry accomplish? Poetry cannot become a weapon or food. The poet senses this unease as poetry retreats into the clouds of war. Korean poets who experienced the Korean War exposed the atrocities and violence of war, raised awareness to the issue of human existence, and sang songs of hope to overcome the ruins. The number of people sacrificed in the Korean War exceeded millions, and South Korea suffered damage worth over 400 billion won. This amount was twice the country's annual GDP at the time, and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economic foundation collapsed.

From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agreement in 1953 to 1959, the period is referred to as the post-war reconstruction era. The most important thing was to solve the poverty of those who had lost their homes. Thus, it can be said that the 1950s in Korea were devoted to fighting a war and rebuilding from its ruins. Through such efforts, a foundation was laid for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and the resilience to overcome hardships enabled the flowering of democracy. The poets of this time period demonstrated that the greater the trial, the stronger the will to overcome it.

4차시 민주화의 열망과 민중혁명 - 1960년대~1980년대의 시

In this session, we will examine the historical situation and the flow of poetry in Korea from the 1960s to the 1980s, which can be called a period of political turmoil.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1960s in Korea began with the April 19 Revolution. If the March 1st Movement in 1919 was an explosion of the historical task of national liberation under colonial rule, the April 19 Revolution of 1960 was represented an historical moment for establishing civil society and declaring the end of unjust power. Thus the significance of the April 19 Revolution is comparable to the spirit of the March 1 Movement.

The April 19 Revolution was triggered as resistance to political corruption and dictatorship in the post-war reconstruction period. Syngman Rhee, the first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ld power for an astonishing 12 years through illegal constitutional amendments. He committed various fraudulent acts, such as ballot box switching, vote manipulation, and forced public vote, and ruthlessly suppressed the people and the media who opposed him. The slogan of the people who led the April 19 Revolution was to demand President Rhee's resignation, overthrow of the one-man dictatorship, and condemnation of the March 15 fraudulent election. The March 15 election was a large-scale fraudulent election conducted by the ruling party at the time, the Liberal Party. In 1959, President Rhee reversed his decision not to run for office and declared his candidacy for a fourth term, and the Liberal Party conducted organized fraudulent elections to ensure his victory. Inevitably, nationwide protests against fraudulent elections erupted as the anger of the people grew stronger. On the day of the election, March 15th, an anti-fraud protest in Masan, Kyöngsangnam-do, started and quickly

spread throughout the country.

The immediate trigger for the eruption of citizens' anger was the death of Kim Chu-yŏl. Kim, a high school student, went to Masan to take an exam but joined the protest and went missing. On April 11th, he was found dead with a tear gas canister stuck in his eye in front of Masan Bay. It was a truly horrific event. The incident was almost covered up, but one photo journalist's quick response and resourcefulness led to the photograph being published. Tear gas canisters is a tool containing tear gas that the police use to suppress protests. The substance of the canisters causes vomiting, intense eye pain, and tears, and is widely used to suppress protests. They are originally called just tear gas, but they are put in a launcher that looks like a gun and fired by pulling the trigger. The sound is loud, and direct contact can be deadly, so they were called tear gas canisters or grenades, as they are similar to bombs. Because they are extremely dangerous, police are not allowed to shoot them directly at people when they are fired. They must be fired into the air. However, the fact that a tear gas canister was stuck in Kim Chu-yŏl's eye means that the police, who were suppressing the protest, fired almost directly at the citizens, as if they were firing a gun. It is said that tear gas canisters cannot hit at such an angle unless they are directly aimed at the protesters.

The citizens rose up like a wildfire at the sight of the high school student being brutally sacrificed with such violence of the corrupt President Rhee government. The President Rhe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suppressed the fierce protests of the citizens with even greater violence. They fired guns at the protesters and engaged in a gun battle with them. In the face of the citizens' unrelenting anger and resistance, President Rhee finally announced his resignation on April 26th, and the President Rhee's Liberay Party regime collapsed. And on June 15th of the same year, the Second Republic was established.

The April 19 Revolution was a democratic citizen revolution that overthrew the dictatorial regime through the power of the people's resistance against corruption. Despite the scars of the Korean War, Korean citizens united with

a desire for democracy and realized their aspirations through action. However, unfortunately, the Second Republic, which was born as a result of the April 19 Revolution, did not last long.

The next year, on May 16th, 1961, another major event shook the history of South Korea. It was the May 16 military coup. The May 16 military coup was an incident where a military faction led by Park Chung-hee seized power. The mobilized military manpower was only composed of a few thousand. These military faction leaders saw the political chaos and instability after the April 19 Revolution as a dangerous situation and staged a coup to seize power. The person in the center of the photo is Park Chung-hee, the main figure of the May 16 military coup. Park Chung-hee seized power through the May 16 military coup and became the 5th and 6th President of South Korea. Since the military regime had no legitimacy, they faced another form of resistance. The military regime implemented a strong anti-communist policy to prevent the spread of anti-government forces and oppressed anti-government forces by labeling them as communists.

The poetry of the 1960s in South Korea reflected both the desire for revolution and the frustration that came with it. Kim Su-yŏng is a representative poet of the era. Kim Su-yŏng is called the poet of revolution and love. At first glance, revolution and love may not seem to go together, but I believe that there is a force of love in the deep abyss of revolution. Kim Su-yŏng was an excellent poet who conveyed criticism of the dictatorship, the enthusiasm for revolution, and the hope that the revolution dreamed of, while also capturing the shame that individuals in the failed revolution felt. In the poem "Blue Sky," he asks, "Why is the scent of blood mixed in freedom? Why is revolution a lonely thing, and why must we be lonely?" Perhaps many poets felt the same way at the time. Was it because he was well aware of the fact that Korea, having gone through a history of trials and tribulations, knew that freedom is not something given naturally, but something that must be fought for with blood, sweat, and tears?

In the history of Korean poetry literature, the April 19 Revolution gave birth to the so-called "participatory poetry" trend. Participatory poetry was

proposed from the viewpoint that poetry should have the function of dealing with issues of reality by reflecting the demands of the times. In other words, it focused on the social role of poetry. Unlike the radical class-oriented poetry that appeared in the 1920s and 30s, like the poetry of KAPF members, the participatory poetry of the 1960s and 70s took a step back from the explicit expression of ideology or beliefs and pursued both aestheticism and a focus on the concrete lives and rights of human beings.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 position that valued the aesthetic purity of poetry more than the participation in reality. The history repeats itself – the binary of participatory poetry and the pure poetry appeared again. In the 1960s and 70s, there was a coexistence of two poetic tendencies in Korean poetry: the realism-oriented tendency of "participation poetry" and the aesthetic pursuit-oriented tendency of "pure poetry". It was similar to the situation in Korean literature during the 1920s and 30s, characterized by the opposition between ideologically-oriented poetry and literature that pursued purity of aesthetics. However, it may be more appropriate to understand the situation of Korean poetry in the 1960s and 1970s as a search and exploration for the new direction and role of Korean poetry, rather than an extreme collision and confrontation between two opposing tendencies. The perspective of dividing the coexistence of participation and purity into a binary oppositional structure is actually a trace of the history of ideological conflict.

The poetry of the 1960s cannot be explained solely by the confrontation between participation and purity. On the one hand, there was an awakening to how much confusion and sacrifice Korean modern history had experienced due to ideological conflicts. In addition, the 1960s expanded the realm of poetry through various poetic experiments that broke free from the constraints of ideology. The Korean literary scene of the 1960s was a time of diversification and experimentation in poetic form.

Park Chung-hee, who seized power through the May 16 military coup, was re-elected as the sixth president after his term as the fifth president. The Third Republic Constitution specified that the president could be re-elected

only once. However, Park Chung-hee ran for the seventh presidential election in 1971. At the time, the opposing candidate was Kim Dae-jung, and Kim's support from the people threatened Park Chung-hee's position. Regardless, when the results of the seventh presidential election were revealed, Park Chung-hee had barely defeated Kim Dae-jung, but allegations of election fraud and opposition persisted. He had been elected as president through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After his election, Park Chung-hee changed the constitution of South Korea. Thus was born the Yusin Constitution in October 1972, which is also known as the October Yusin (Restoration). The term "Yusin" means to renew the old, but the Yusin Constitution carried out by the Park Chung-hee regime was for his dictatorship and long-term rule, and was a system that greatly strengthened the President's power while restricting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The Yusin Constitution abolished the President's direct election system and term limits, which was truly an unjust law. Park Chung-hee was elected as the 8th and 9th President through the newly adopted in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It was only natural that the opposition movement against the Yusin Constitution grew stronger. As the country's industrialization led by the state progressed, the nation's wealth increased. However, labor exploitation, suppression, and income inequality intensified, leading to greater instability in people's lives. As the military dictatorship's oppression and corruption worsened, the desire for democracy among the people grew stronger.

What was the state of Korean poetry in the 1970s under the military dictatorship's oppression? The emergence of "minjung (people)" poetry based on the growth of popular consciousness is the most significant characteristic of Korean poetry in the 1970s. The "minjung" poetry and realism poetry that began to trend in the 1970s were a genre of "minjung" literature that appeared as a concept in the development of national literature theory in the 1970s, re-establishing participatory poetry of the 1960s as a new form. Kim Chi-ha and Sin Kyöng-rim are representative "minjung" poets. Kim Chi-ha's "Ojök (Five Bandits)" and Sin Kyöng-rim's "Nongmu (Farmer's Dance)" used satirical techniques to expose the corruption of the military dictatorship and realistically depicted the suffering of the people's lives. The "minjung" poetry

of the 1970s expressed a will to overcome reality by exposing the authoritarian regime's corruption and resisting injustice through poetry. While depicting the painful reality of the people, it acquired an aesthetic vision and opened a new horizon for modern Korean poetry.

The military dictatorship under Park Chung-hee suddenly came to an end in 1979. This was due to Park's death on October 26, 1979, by Kim Chae-gyu, the head of the Korean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is event is referred to as the October 26 Incident or the Park Chung-hee assassination incident. Following the President's death, Choi Kyu-hah, who was the Prime Minister at the time, assumed the presidency through an interim government before Chun Doo-hwan and his "Hanahoe" faction, a private society within the military, launched a coup d'etat and seized power. This faction is known as the "sin kunbu," or "new military regime," as distinguished from the previous May 16 military government.

The resistance against the new military regime by the people escalated into nationwide protests, particularly through a student-led uprising in May 1980. Chun declared martial law on May 17, 1980, and used the military to brutally suppress opposition forces. On May 18, the day after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armed forces indiscriminately attacked civilians in Kwangju and opened fire. The state, which should have protected its citizens, resorted to shooting guns, wielding batons, and committing brutal torture and violence against its own people. Some of the citizens organized a civilian army to fight against the military. Even today, traces of the bullets fired by the military from helicopters and on the streets can still be found in various parts of Kwangju. However, due to strict press censorship at the time, these brutalities were not widely known, except for the efforts of one foreign journalist who risked his life to report on the situation and expose it to the world. Witnessing such atrocities, even I found it difficult to breathe for some time. At the cost of this innocent lives, Chun Doo-hwan became the president.

The poets who were active in the 1980s could not be free from the shadow of the May 18 Kwangju Uprising. Poets are not disconnected from

the reality of their time. In terms of content, the poetry of the 1980s was predominantly oriented towards the people, and in terms of form, it strongly expressed a contrarian and resistant nature. Poets such as Pak No-hae, Paek Mu-san, Kim Nam-ju, Kim Sa-in, Kim Chŏng-hwan, and Yi Ŭn-bong were the poets who wrote poetry that was oriented towards the people or realistic in the 1980s. The voices of anti-dictatorship and critiques of capitalism in realistic poetry were particularly pronounced in the 1980s. This period also produced poetry that pursued modernity and artistry, making it the era of poetry. The 1980s were a time when many young people became poets and many people read poetry.

The fact that poetry flourished during the most violent era of Korean history raises the question of what this means. Kim Nam-ju, in his poem "Don't Sing of May as a Blade of Grass that Withers in Wind," stated, "Don't sing of May as a blade of grass that withers in wind. Grass blades are not fitting poetic images for the blood battle resisting massacre. There is no room for the lyrical to stand in between the bloody massacre and the armed resistance." For the poet, singing of May in a beautiful lyrical way was difficult to bear. How powerless and false must lyricism have seemed in the midst of the carnage and resistance? Poetry should have become a gun, a sword, a protest letter, and sometimes a comforting hand in response to the needs of the times. This was what Korean poetry was like in the 1980s.

5차시 평화와 정의를 향하여 – 1990년대와 2000년대 이후의 시

In this session, we will examine the major events in Korean contemporary history in the 1990s and 2000s, as well as the trends in poetry.

After the military coup on December 12, 1979, which took control of the government, the new military regime suppressed the pro-democracy movement. As a result, protests by the people, especially college students, intensified. In the 1980s, the streets of Korean universities were filled with Molotov cocktails and tear gas due to the pro-democracy movement. In 1987, Seoul National University student Pak Chong-ch'öl, who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was brutally tortured to death by investigators from the security department. Of course, the new military regime tried to cover up the incident, but it eventually became known to the world. Then, the new military regime attempted to manipulate and downplay the truth of the incident. This was the incident that created the famous saying in Korean society, "He suddenly died when the investigator hit on the desk." Such deceptive acts were exposed as lies by the testimony of O Yŏn-sang, who was a doctor at the time at Chung-Ang University Hospital, and the people expressed tremendous anger. This incident became the spark that ignited the June Democracy Movement, also known as the June Struggle in Korea.

During this period, many college students lost their lives or suffered injuries from torture. The 2017 movie "1987: When the Day Comes" is a film that deals with the torture and death of Pak Chong-ch'öl. When watching this movie, we are prompted to think about the power of the just and determined force of the people, which can bring down even the greatest dictatorial powers. The June Democracy Movement, was a turning point in establishing democratic values and institutions, and it laid a foundation for the significant development of civil movements in Korea. Following the June Democracy Movement, the military dictatorship of Chun Doo-hwan came to

an end, and the direct presidential system, which had been abolished by Park Chung-hee, was restored. In the same year, on December 16, the 13th presidential election was held, and Roh Tae-woo was elected president. Despite the numerous sacrifices made to end the military dictatorship, the democratic forces that had been at the center of the revolution failed to unite, resulting in another president from a military background being elected. During this period, Korea hosted the 1988 Seoul Olympics, to the world that it had overcome the ruins of war in a short time and achieved what was called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symbolizes Korea's rapid growth and economic development since the Korean War. However, we must not forget that the sacrifices of many ordinary people followed this rapid growth.

The emergence of Korea as a cultural powerhouse today was made possible by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Kim Dae-jung was imprisoned, kidnapped, and even targeted for assassination by the Park Chung-hee and Chun Doo-hwan regimes, but he eventually became president in 1997. During his presidency, Kim Dae-jung established the found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oday's South Korea through policies promoting cultural promotion, among other things. He was also recognized for his contributions to human rights improvements and advancements in inter-Korean relations, receiving the Nobel Peace Prize in 2000. In particular, the June 15, 2000 Joint Declaration by the leaders of North and South Korea, holds deep significance. Looking back at Korean history, after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and through liberation, the two Koreas have been hostile towards each other through the Korean War and division this scene evokes not only political and historical meaning, but also emotional resonance.

Would you like to see the scene from that moment briefly? In the video, they are also talking about it as a historical moment for our nation. Many citizens watched the scene live on television, hoping for an end to dictatorship, the realization of democracy, the resolution of division, and the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In the 1990s, Korean poetry shifted from collective themes of history and

societal missions to individuality, personal existence, and cultural experiences. With a focus on the individual's cultural life, various poetic explorations emerged, such as contemplations on death and annihilation, investigations of urban everyday life, the aesthetics of the body, feminist poetics, ecological imagination, and interests in the cyber world. These diverse poetic experiences, based on changes in media and cultural environments, made Korean poetry richer and more vibrant.

The history of South Korea in the 2000s began with the election of Roh Moo-hyun, a human rights lawyer, as president, which caused a sensation. However, after President Roh's term, the next government's excessive retaliatory investigations and bribery scandals tarnished the government's image. In 2009, the political tragedy of a former president taking his own life followed. At that time, Lee Myung-bak, who was president, was found guilty of bribery, embezzlement, and other charges, and was sentenced to imprisonment and served his sentence, after his term. The next president, Park Geun-hye, failed to respond properly to national disasters such as the 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outbreak and the Sewol ferry disaster, and was impeached in 2017 on charges related to influence peddling. She became the first female president in South Korean history and the first president to be impeached, a simultaneous honor and disgrace.

The Sewol ferry sinking on April 16, 2014, brought a crisis to the Park Geun-hye government. The Sewol ferry, carrying 476 passengers including Danwon High School students at Ansan on a field trip and 476 passengers, was heading to Cheju Island but sank in front of Chindo Island in South Chōlla Province, resulting in a major disaster in which 304 people died. This incident was not a simple maritime accident, but rather an event that exposed the problems of Korean society, from the absence and irresponsibility of the national system to the inappropriate response after the accident also became the biggest shock to South Korean society in the 21st century and left an indelible trauma on Koreans. The number of Danwon High School students among the 304 victims was well over 200. I, too, cannot forget the shock of watching that scene on the news. I wonder how I can put into words the

shock of watching so many students and passengers gradually sink in real-time. The Sewol ferry disaster was an unimaginable shock and source of sadness to the people of South Korea, but that emotion soon turned into anger. This was because the basic requirements were not met in every aspect, from the cause of the accident, the rescue process, and the aftermath of the accident, and it became clear that the social safety net and national system were not functioning properly.

The sunken Sewol Ferry was finally salvaged in 2017, after Park Geun-hye was impeached. After three years, the Sewol ferry was brought back to the surface in front of us. When the nation's power leads people's lives into tragedy or history pushes individuals into the abyss, people tend to come together more strongly, gather small strengths, and create strong waves. The trauma of the Sewol Ferry disaster is still ongoing, but Korean citizens have made voluntary efforts to overcome this collective trauma and make society a better place, and these efforts continue today.

One of these efforts is the monthly 304 Reading, led by writers, held at the time when the Sewol Ferry sank. "304" represents the number of victims of the Sewol Ferry disaster. I also participated as a reader in the 304 Reading in November 2017, where I recited a poem. I vividly remember that the weather was clear when we started, but suddenly thunder roared and rain poured down as soon as we began the reading at the time when the ferry sank, which created a very solemn moment for everyone. In addition, many writers have stepped forward to mourn, sympathize, and heal. The first commemorative book for the Sewol Ferry disaster, <We Were All Sewol Ferry>, was published, and commemorative birthday poetry collections, such as <Mom, It's Me>, a collection of poems written by poets as a representation of the thoughts of the Danwon High School victims, and <Come Back as Flowers> for the third anniversary, were also published. In addition, many other commemorative poetry collections were created. Poet Pang Min-ho, who published the Sewol Ferry commemorative poetry collection <My Pain Could Not Even Be a Single Bubble of Air Underwater>, said, "I have not been able to sleep peacefully since the Sewol Ferry disaster and have been plagued by sadness, resentment, guilt, and despair."

Although these emotions of sadness, anger, guilt, and despair were shared among the Korean people in the aftermath of the Sewol Ferry disaster, poets have the added responsibility to record, testify, empathize, and overcome them through poetry. The historical duty of poetry to resist colonial rule and resist authoritarianism has taken on a new form in the 21st century as aesthetic politics or sensory solidarity through poetry. The political debate about poetry in Korea in the 21st century can be seen as a place for questioning and thinking about the possibility of political poetry, while still remaining aesthetic. The newly suggested political nature of poetry arises from aesthetic politics and the harmony between the political and the poetic. We need to consider whether at some point we started to view poetry and politics as two separate areas that should not interfere with each other. Of course, it is undeniable that there have been poetry and politics that served as slogans or embodied political ideologies in the past. However, we should also remember that poetry has been a means of witnessing and representing history at crucial juncture and enabling empathy and solidarity between people. Jacques Rancière's philosophical concept of "the distribution of the sensible," which was a major theoretical foundation of the discourse on the politics of poetry in the Korean poetry community in the 2000s, stated that the politics of literature and art are inherently and essentially embedded in aesthetics. According to him, art is not independent in itself, but always has a political dimension inherently, even if unintended, art has such traits. Therefore, the question of how to distribute words and writings that correspond to the sensible is inherently a political issue. This reminds us of why Japan tried to control and exterminate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the end of its colonial rule, and why the military dictatorship in Korea attempted to restrict freedom of expression and cover the eyes and ears of the press and the people. It prompts us to think about the fundamental reasons behind these actions.

Shall we recall the beginning of our discussion? Poetry bears witness to history, and history is vividly represented through poetry. Korean contemporary history, which has faced numerous hardships but has overcome them with the power of the people at every critical juncture, is no different

from the history of Korean poetry. Through this lecture, I hope you will experience the vibrant and dynamic world of modern Korean poetry that has lived and breathed together with modern Korean history. Thank you.

讲义

1차시 한국 현대‘사(史)’와 현대‘시(詩)’

大家好, 本次讲座将对《韩国现代史与现代诗歌》进行整体介绍, 我是姜銀珍. 为了帮助大家更好地理解《韩国现代史与现代诗歌》, 本次讲座将学习相关背景知识与概念, 以韩国近现代史上的重要历史事件为中心, 考察文学如何证实历史、历史又如何在文学特别是在诗歌中得到再现的. 在韩国语中, 讲座题目中的“史”与“诗”, 这两个字很相似. 韩国语文字形态上的相似性可能是个偶然, 但恰如“史”与“诗”的关系, 它们同时具有相似性与异质性, 好像是在暗示某种微妙的关联性. 历史通过文学得以再现, 文学通过历史而生动. 在韩国文学史中, 很多文学作品都是历史的证言, 韩国的诗歌证明了苦难与斗争的历史, 生动地描绘出很多与历史相抗争的人物.

因为从本质上看, 历史并不记录个人的感情. 生活在巨大历史潮流中的人们, 作为个人, 如何接受历史的巨浪? 当时又以什么心情生活? 生活在现在的我们之所以能知道, 是因为他们留下的文学作品. 诗歌是描述个人内心的第一人称抒情性体裁, 与其他体裁相比, 在感情与情绪层面上, 可以超越时空间, 使我们与他们相遇. 如果说历史从宏观上叙述革命的客观事实的话, 诗歌则再现了革命的主体在革命中所感受的空气、感情与内心. 通过诗歌, 我们可以与100年前的青年心灵相通, 也可以感到殖民地青年的痛苦, 还可以感受到解放的喜悦. 我认为, 这就是诗歌的独特力量.

诗歌虽然个人性很强, 但在国家与民族处于历史巨变的情况下, 人们也不可能只沉浸于个人的感情. 韩国的诗人们属于教育水平较高的精英知识分子层, 他们肩负着历史的重任. 他们必须讴歌革命, 而不是讴歌爱情, 他们不赞美春光, 而需要证明废墟与死亡.

众所周知, 韩国的近现代史非常坎坷. 日帝强占期结束后, 迎来戏剧性的解放, 但随后又经历了韩民族最大的悲剧——韩国战争. 虽然已经休战, 但直到现在, 我们还是处于南韩与北韩分断的历史中. 在战争的废墟上, 韩国面临着重建国家、关系生死存亡的局面. 然后又经历了军事独裁以及对独裁的反抗与革命等混乱的政治史, 最后确立了民主主义国家, 直到今天, 实现了飞速发展的耀眼成果.

以上简单地概述了韩国近代史的巨大潮流. 这些巨大的变化发全部生在100余年的短暂时间里, 在韩国现代文学上被视为重要历史起点的3·1运动发生于1919年, 最近给现代诗歌领

域带来巨大影响的事件——世越号惨案发生于2014年，这两个事件的时间间隔差不多是100年。这就旁证了：韩国近代史是一个充满戏剧性变化与动荡的历史。

历史事件会给作为知识分子的诗人带来巨大的影响，而文学作品在特定的历史时期也呈现出普遍的倾向。所以，韩国现代文学史基本上以历史事件为基点进行时期划分。在文学史的时期划分上，不是没有统一的基准。每个学者都根据稍微不同的基准划分文学史，并予以命名，最简单的时期划分方法是以10年为单位来叙述文学史。即，1920年代、1930年代、1940年代、2000年代，这样进行划分。以10年为一单位的文学史划分非常方便，也可以对整个韩国现代文学史进行整理。以10年为单位进行说明，也有其特性。比如说，在1930年代，左右翼的对立便是诗歌文学的特点。

但围绕着这一点，也出现了很多异议。即，以10年为单位进行文学史划分，不是根据文学特殊性进行的划分，而是文学史叙述者或者研究者图方便而进行的划分。这种指责非常有道理。文学怎么可能每10年就发生有规律、有意义的变化呢？带着这种问题意识，以历史事件为中心，对韩国现代文学史进行的时代划分现在被更广泛地接纳。本次讲座将首先学习大多数学者普遍接受的、韩国现代诗歌史的时代划分。

首先，我们来看一下近代与现代的问题吧？韩国现代诗歌文学领域经常区分近代与现代。近代与现代都属于英语的modern，所以，这命名本身就暗含着混乱。有人说，对二者进行区分没有意义，还有人认为，现代就包含了近代与现代，但韩国诗歌文学的研究者更熟悉于区分近代与现代。这是因为在文学的主体认识以及美学方面，发现了近代性与现代性。理论虽然很纷杂，但有些近代时期与现代时期是被普遍承认的，还有一些反对这两个区分点的中间节点。

那么，近代从何时开始到何时结束？现代又从何时开始呢？在这个问题上，有很多学说。一般认为，从在韩国现代诗文学中，最早创作的新诗——崔南善的《从大海到少年》的1900年前后到3·1运动时期，是狭义的近代，广义的近代非常广泛，包含1920—1930年代一直延续到1945年解放的时期。

另外，韩国现代诗歌的起点为1945年解放，这一观点被广泛接受，但将英美现代主义与欧洲的现代派文学被创作出的1930年代视为近代诗歌起点的观点也在膨胀。因为将何时定为近代的终点与现代的起点这一意见差，大家听韩国现代文学讲座或读书时，会发现这样的问题：关于1930年代，有的学者主张是近代，有的学者却主张是现代。从结论上看，这些观点都对。

近代何时结束，现代何时开始，事实上，这可能并不是一个重要的问题。更重要的是，从何时开始才出现了与以前文学倾向有明显区别的新文学倾向，这才是有意义的时期划分。

画面上就是以历史节点为基准划分现实诗史的方法. 3·1运动以后的近代诗歌发展期、日帝强占时期现代诗歌形成期、解放期、战争期及其前后时期、民主化运动期、产业化与军部政权期、民众革命期、脱冷战期以及世界化时期, 这是以历史转折点为基点划分的文学史. 韩国现代诗歌史的时期划分与文学史的事情划分基本一致. 对此再进行归类的话, 就是将从3·1运动到解放期统称为解放前时期, 从解放后到战争期及战后合并为其他时期, 从民主化运动到民众革命期可以归类为同一范畴. 最后, 脱冷战与世界化时期可以归为一类.

这种基于历史的韩国现代诗歌史划分是最常用的方法, 它融合了10年为单位的划分方法, 是叙述韩国现代诗歌文学史的最主要的方法. 这个时期划分法的基础是区分时代特征的历史事件. 3·1运动、解放、韩国战争、军事政变、革命等就是代表性的例子.

在日帝强占期的众多事件中, 历史的转折点是3·1运动. 无论是在历史上还是是文学上, 3·1运动都是重要的节点. 在韩国现代诗史中, 从3·1运动到解放前属于近代诗歌、现代诗歌的发生发展期, 另外一个重要的节点是1945年的解放. 解放宣告一个时代的结束, 同时也宣告另一个时代的开始. 以解放为起点, 韩国现代诗歌迎来新的局面.

然后又遭遇了韩国战争. 在这次战争中, 国土成为废墟, 无数人失去了生命. 韩国战争也引起了韩国诗歌的明显变化. 所以, 学者们基本都赞同将韩国战争期与战后重建期划分为另外一个时期. 到了1960年代, 在政治旋涡中, 发生了4·19革命、5·16军事政变、维新、光州民主化运动等韩国现代史上的重要事件. 这一时期不是与外国的对立, 而是韩国社会为脱离封建政治制度, 找回民主、自主市民权力, 发展到民主主义社会而不得不经历的施误法时期. 韩国诗歌在这种历史旋涡中, 与历史共呼吸, 经历了重要的变化. 在1990年代以后, 随着迎来冷战的终结与世界化的开始, 又经历了一次变化. 贯穿着所谓的后现代主义时期, 韩国诗歌迎来了新的局面.

所以, 以历史事件为基础, 眺望韩国现代诗史, 并不仅仅是单纯地考察历史与诗歌直接的关联性, 也不止于对事实关系进行一对一的简单介绍. 比如说, 在日帝强占期, 有很多讴歌民族抵抗的诗歌, 在军部政权下, 也发表了很多讴歌民主主义与自由的诗歌. 这种一对一的简单对应式介绍是一种对历史与文学的肤浅认知. 包含诗歌在内的文学作品都蕴含着我们称之为时代性的层面.

文学史不是固化在过去的遗物, 而是与时代同发展, 不断更新的、鲜活的有机体. 本讲座瞩目于历史与文学的内在关系, 在韩国现代史的整体发展中, 眺望文学的脉络.

这段引用文很好地说明了应该用哪种观点阐释韩国诗史. 我来读一下.

"文学史不是简单的历史事实罗列. 不是作品的罗列, 也不是关于诗人或作家生平的边缘性叙述. 文学史应该挖掘通过作品而表现出来的内在关联的可能性, 以此为基础, 构筑概括时代的视角. 应该使作品的审美性与时代性相互呼应, 在韩国史的发展中展望文学史的脉络."

这段话很透彻地点明, 我们应该以什么观点看待文学史, 更准确地说是诗文学史. 这段话主张, 我们应该深入探求通过作品流露出来的内在关联的可能性, 并以此为基础, 构建概括时代的视角.

文学作品不能仅用审美性, 即美学特征来评价其价值. 时代性也非常重要. 通过作品的审美性与时代性的呼应, 在韩国历史中把握脉络, 这就是以历史与文学的内在关联性为基础, 探索韩国现代诗歌的核心.

2차시 일제강점기 문단 상황과 시의 지향

在将何时定位韩国现代诗歌的起点上，多少存在着一些不同的意见，不过，从历史时期上看，这与日帝强占期有着非常紧密的关系。为更好得掌握日帝强占期的韩国诗歌文学，本次讲座将首先查看相关的重要历史事实，并考察日帝强占期韩国文坛的发展趋势。

韩国于1910年被迫签订《韩日合邦》条约，从字面上看意思是韩国与日本合成一个国家，但从内容上看是将韩国的统治权移交给日本，签订了这个条约后，韩国沦为日本的殖民地。韩国一直对日本持有的否定性认识，韩日两国不友好的关系始于更早的时期，可以上溯到朝鲜时期之前，不过，在韩国现代史上，两国的复杂关系始于殖民地时期。一般来说，韩国不将这段时期称为日帝时代或者日本殖民地时期，而称为日帝强占期，是为了强调韩国是被日本强制夺取了统治权。

象征被日本帝国主义强制殖民的建筑就是朝鲜总督府。朝鲜总督府是掌管殖民统治与掠夺的本部。它也经常出现在以日帝强占期为背景的文学作品中。那是因为朝鲜总督府实际的作用是殖民掠夺，而且其本身也是象征日本殖民统治与压制的代表性建筑。

被抢走国权的韩国人对日帝露骨的掠夺与民族抹杀统治非常反感。这种感情喷发出来的事件就是发生于1919年3月1日的3·1运动。3·1运动的背景是：韩国的国王高宗皇帝突然传出死讯，死亡原因是被日本毒死，随着这个消息的传开，民心急速动摇。本来就已经非常强烈的反日感情达到了高潮。照片上是3·1运动非暴力万岁运动。高举太极旗高呼"大韩独立万岁"是3·1运动的代表性场面。但，3·1运动并不是一时冲动而爆发的单一性示威。国内外在前期已经做好了充分的准备，3月1日爆发了大规模的万岁运动后，便扩散到全国各地，强度与规模也越来越大。对韩国人而言，3·1运动是韩国人抵抗精神的象征也是一段值得记忆的光荣历史。有人甚至主张不应该称为3·1运动，而应该称为3·1革命。但3·1运动没能直接带来韩国的独立，所以，仅从结果上看，在表面上，这是个失败的运动。但从民众主体的潜力与显示出的近代自觉性来看，对韩国人来说，具有非常特别的意义。

因此，韩国现代诗歌史将3·1运动视为诗歌文学变化的重要节点。因为抵抗的文学、近代主体性的自觉、负罪感、时代责任感等与3·1运动以前截然不同的特征明显地出

现在韩国诗歌文学中。日本残忍地镇压了非暴力的和平运动3·1运动 向手无寸铁的群众开枪射击。因此出现了很多无辜的牺牲者。

柳宽顺便是3·1运动的象征，也是代表韩国人抵抗精神的人物，至今仍被大多数韩国人崇敬。柳宽顺主动参加3·1运动，被日本警察逮捕入狱，在监狱中也展开了独立运动。那时她才年仅17岁。柳宽顺在监狱中因日本警察的拷问与营养不良，18岁便离开了人世。17岁少女拼死的抵抗及其死亡，这就是柳宽顺成为3·1运动抵抗精神之象征的原因。韩国为颂扬柳宽顺而称之为烈士。由此，3·1运动与柳宽顺烈士有着密不可分的关系。柳宽顺遗留下来的照片是被捕入狱时照的。因残酷的拷问而红肿的脸庞、悲伤的眼神，看起来非常可怜。在韩国人心中，柳宽顺的这个形象象征着韩国民族伤痛的历史，也揭示出牺牲于历史毒刀下的一个少女的悲剧。曾经有一位韩国网民用APP 复原了柳宽顺的模样而成为话题。被复原的柳宽顺是笑脸。脸上的浮肿也消失了，回到平凡的少女形象的柳宽顺，大家有何感想？在韩国人中，应该有人会流下眼泪。

截止到现在，我们考察了3·1运动的意义。被卷入历史洪流中的韩国文人不得不背负时代的责任与爱国使命。当时的诗歌都鲜明地呈现出坚决的意志与决心。诗歌本应是爱情的小夜曲，但历史却太残酷。但诗文学并未停止，反而更炽热地燃烧了起来。3·1运动后，韩国诗坛出现了很多同人志，作家也大幅增加。

这一时期主要有3个潮流。一是自由诗歌的创作，二是通过报纸、杂志发表作品，三是作家层的扩大。首先，以自由诗为中心的诗歌创作意味着，3·1运动之前的多种类型的诗歌得到统合，转换为以自由诗为中心的创作。这种诗文学的变化，也体现出3·1运动带来了近代主体的近代性自觉。如果说，3·1运动以前多种诗歌形式的出现是近代主体近代诗歌的摸索过程的话，3·1运动以后的自由诗则以近代的形态揭示出诗文学已经扎下根。二是通过报纸与杂志，发表作品。这种变化因印刷媒体的发展才成为可能。1920与1930年代的韩国文坛出现了一个现象——很多报纸杂志创刊后又消失了。留名韩国诗文学史上的文艺杂志都出现于这一时期。《创造》、《白潮》、《废墟》等就是创刊于1920年代的代表性文艺杂志。但因为日帝的审查或经济问题，报纸杂志很难长时间存续，很多报纸杂志都很快停刊。不过，韩国文人通过不断地创办杂志而努力发表文学作品，建构公论场域。媒体的增加促使作家层扩大。接受了近代教育的精英知识分子成为文学创作的主体，媒体越多，作家就越多。在韩国诗文学史上迄今仍占据重要位置的诗人 很多都出现在1920与1930年代。金素月、金亿、韩龙云、李陆史、李相和、朴钟和等 都是1920年代韩国诗歌的代表性诗人。

我们看一下具体的事例。从1910年到3·1运动，日本留学生为中心创办的综合学术期刊《学之光》、文艺周刊《泰西文艺新报》是代表性期刊。以这些报纸与杂志为中

心，海外留学派文人与知识分子介绍了很多外国的文艺理论与作品。3·1运动以后，民族性的主体活动大幅增加的现象在文坛也能看到。“朝鲜语研究会”成立了，《朝鲜日报》与《东亚日报》创刊了。这两个报纸一直延续到今天。还出现了很多同人文艺杂志。同人是指倾向相似的文人组成的文学创作团体。这一时期，文人经常聚集在一起创办文艺杂志。除刚才所说的《创造》、《废墟》、《白潮》外，《蔷薇村》、《金星》、《灵台》、《朝鲜文坛》等多得数不胜数的杂志得以创刊。

这里值得瞩目的是最下面的阶级主义文学。在韩国近代诗歌的发展期1920年代，诗歌文坛大体上有3种潮流。一是积极关注殖民地现实并付诸行动的行动主义文学。当时是一种新倾向的文学，所以也被称为新倾向主义文学，因其时代背景——阶级主义或社会主义，被称为社会主义文学、阶级主义文学或者无产阶级文学，缩写为普罗文学。名字很多吧。从大范畴上看，这种现实主义潮流连接着现实主义思潮。二是浪漫主义倾向。因法国象征主义的传入，梦幻性、悲哀情绪浓厚的诗歌作品使韩国的浪漫主义具体化。浪漫主义诗歌与积极关注现实的普罗诗歌具备完全不同的性格。这种截然相反的诗歌倾向的对立是解放前韩国诗文学最重要的特征之一。最后一个潮流是传统指向性，即民谣诗的创作。这个潮流是为抵抗日帝的民族抹杀政策而追求韩国的传统格律。开启新时代——近代的探讨与回归传统的主张 这种截然相反的倾向是共存的，这一点非常有意思。当时，围绕着时调复兴，还展开了论争。

总之，从1920年代到1930年代一直到解放前，韩国的诗文学主要 两分为泛现代主义阵营与现实主义阵营，形成了一个对立的结构，这是最大的特征。我之所以使用泛现代主义阵营，是因为一些小的文艺思潮或流派 从整体上看，也与现实主义形成了二分法的对立结构。古典主义、浪漫主义、象征主义、超现实主义等 这些稍有不同的诗文学倾向都与现实主义有着鲜明的不同，所以，被纳入泛现代主义阵营。

总结一下，在法国象征主义的影响下，以浪漫主义与 传统主义为基础而形成的民族主义阵营反对文学的政治性，追求纯粹的文学，并作为一个潮流得到发展。这种诗歌倾向被称为纯粹文学。“纯粹”的意思是排斥文学以外的东西 比如政治、理念、社会、现实等，追求文学本身的美学，蕴含着反政治的倾向。在文艺思潮上，这被称为现代主义。当时如此，现在也是如此。纯粹文化与现代主义文学基本上被认为是一样的。而接受马克思主义，与激进的民族主义、世界指向性国际主义相结合而发展起来的是阶级文学，也称为社会主义文学。文学不仅能反映现实，还是扭转现实、改变未来的动力，这个信念是阶级文学的根基。这个阶级主义文学在文艺思潮上是现实主义。将韩国近代文学一分为二的这两个倾向的对立一直延续到以后，现在仍有其残余。追求文学纯粹性的纯粹文学，即现代主义文学与标榜行动主义文学的阶级文学 即现实主义

文学, 其倾向具有明显的不同, 因此形成了极端的对立。纯粹文学指责阶级文学的政治性与不纯粹, 阶级文学则指责纯粹文学是逃避现实。

截止到解放前, 韩国文坛都因为这两个阵营而分分合合, 形成了一股有力的潮流。其不同点是, 纯粹文学沉溺于"文学是什么"这个文学的本质, 而普罗文学则注重"文学应该做什么?"这个文学的作用论。1930年代是韩国现代主义文学正式发展的时期。也是因日帝残酷的镇压, 阶级文学即普罗文学陷入困境、积极摸索出路的时期。随着日帝镇压的加剧, 集体的、组织的活动无法展开, 以多样的小团体为中心的同人活动开始活跃, 这一时期就是1930年代。1920年代也像1930年代一样, 很多同人杂志与文艺杂志创刊又停刊。其中有《诗文学》、《三四文学》、《诗人部落》、《断层》等同人杂志, 除了专门的文学杂志外, 在综合教养杂志与报纸上, 文学栏也占很大的比重。在1930年代, 通过这些媒体, 很多文人发表了作品, 撰写文学谈论。无论是崇尚纯粹文学还是普罗文学, 他们都在反思现实, 认真思考文学的作用。这个激烈又炽热的文学之场域就是1930年代的韩国文坛。所以, 我认为, 1930年代是韩国文学史上最炽热的时期,

3차시 해방기와 전쟁기의 한국 시문학

摆脱日本的殖民统治，恢复国权的韩国将要迎接怎样的命运呢？本次讲座将学习解放期、韩国战争期、战后重建期的历史以及韩国诗文学的潮流。

韩国被日本殖民统治的时间是从1910年的韩日合邦 到1945年的解放，共约35年。也就是出生于1910年的人到了35岁才获得了解放。事实上，日帝强占期与解放期的很多韩国诗人出生于日帝强占期之前 或正好出身于日帝强占期，他们接受了日语教育，习惯用日语进行创作。当然，用日语创作、发表文学作品并不是非常奇怪的事情。以1937年的中日战争为起点，日本正式开始了侵略战争。日本从韩国筹集战争所需的人力与资金以及物资，民族抹杀统治与各种掠夺也达到顶点。对韩国语的压制当然也越来越严厉。日本展开了所谓的"国语常用运动"，处罚使用韩国语的人，这里的"国语"不是指韩国语，而是指日语。语言抹杀政策的依据是"内鲜一体思想"，内鲜一体是指日本与朝鲜即韩国 这两个国家是一体的意思。日本与韩国不是独立平等共存的，抹杀韩国的特色，把韩国的所有东西都变成日本式的，这就是内鲜一体政策。内鲜一体政策是将掠夺韩国的人力、物力资源正当化的手段。

日本对韩民族的抹杀与镇压政策从1930年代末到1940年代越来越严重。在这种高压下，大量知识分子无法继续坚持而转向亲日。这些亲日人士在韩国独立后，被称为"亲日派"，受到韩国民族的谴责。亲日派的清算问题直到现在仍未解决。被称为光复或解放的韩国独立因日本在第二次世界大战中战败而实现。突然到来的解放给遭受日本残酷殖民统治痛苦的韩国民族带来巨大的欢乐与喜悦。人们奔向街头，高呼万岁，尽情享受解放的喜悦。

诗人们用诗歌描述了这个欢乐与喜悦。无论是左翼还是右翼，无论是现代主义派还是现实主义派都是如此。尽情用韩国语写诗，写想写的文章，说想说的话，对他们而言，是巨大的幸福。从1945年8月15日的解放到1950年6月25日的韩国战争，这段时期 在韩国文学史称为"解放期"。在这个不到5年的、短暂的解放期内，迎来后殖民的韩国为摸索以后的发展方向，社会各界一下子涌现出巨大的能量。迎来解放的韩国文坛也快速行动起来。曾被禁止的集会开始广泛进行，解放后，统合文人势力的组织开始出现。在这一时期的韩国文坛上，涌现出多样的意见与势力，如同熔炉一样。以前一直被压制，想说的话、想写的文章、想做的事情是不是很多呀？诗人们拿起笔，用

韩国语创作诗歌，或者将以前没能发表的诗歌编撰成册出版，韩国诗坛一片欣欣向荣。此外，以普罗文学家林和为中心，聚合以前分裂的势力，尝试发展成一个统一的民族文学。无论政治倾向如何，解放期文坛的共同目标与话题是民族文学的建设。对解放期的韩国文人而言，这是一个超越左翼与右翼对立的时代，这个时代充满了建设新文学的热情。

但，历史又让他们遭遇了另一个考验。在美苏冷战体系下，韩国也陷入严峻的政治分裂状态。整个韩国社会都陷入分裂状况，在强国的影响下，韩国被分为南韩与北韩。虽然脱离了日本的殖民统治，但韩国并未实现自主统治，而是被美国与苏联占领了。以北纬38度线为界，苏联驻屯在韩国的北部，美国驻屯在韩国的南部，由此拉开了分断的序幕。这幅画呈现的是，在解放期，美军与苏联军各自占领了南部与北部，韩国战争休战后，南韩建立了大韩民国，北韩建立了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分断陷入固定化状态。这种政治上的悲剧给文人的生活带来巨大的影响。美军占领下的南韩对共产党的压制越来越严酷，因为理念与理想，很多文人选择了越北。在解放期越北的文人因韩国战争的爆发，大部分也未能回到南韩。现在的大韩民国在解放期是美军驻扎的土地。回溯到日帝强占期的文坛的话，重视文学纯粹性、警戒理念倾向的纯粹文学，即现代主义派文人留在了南韩，崇尚社会主义的现实主义派文人则越北了。不过，并不是所有人都只因为政治理念而选择越北。有的文人故乡就在北边，所以选择了越北，还有的文人被强制劫持去了北边。为了与越北进行区分，一般将被强制劫持去北边的情况称为“劫北”。现在的南韩即大韩民国传承的是纯粹文学派的正统性。

随着政治体制的对立达到高潮，南韩甚至想否定越北文人的存在。南韩政府禁止对越北文人及劫北文人进行研究或阅读他们的作品。就算是现代主义派诗人，仅因为越北也会成为禁止的对象。因为禁谈越北文人，在南韩，别说讨论越北、劫北文人的作品，连提他们的名字都很困难。后来，以1988年的首尔奥运会为契机，对越北文人的禁止措施被解除，现在才可以阅读、研究越北文人的作品。最近，初高中学生的教科书中也经常收录越北文人的作品。南韩政府以“越北文人的解放前作品正式解禁措施”为名公开颁布了这个措施。郑芝溶、金起林、白石、李庸岳、吴章焕、林和这些人都是在韩国诗文学上取得耀眼成果的诗人，这些诗人就是这时被解禁的。我也非常喜欢这些诗人。能放心地阅读他们的作品，我觉得很万幸，但另一方面，我们居然把理所当然的事情视为万幸，这个历史悲剧又让人心痛。

我们已经讲过，在解放期，南北分断已经开始了。一个国家建立了两个政府，那战争的危险就只会加大。1950年6月25日，因北韩突袭南韩而爆发的韩国战争直到1953年签订“韩半岛休战协议”，经历了3年的时间，将韩半岛变成了废墟。韩国人都

说，韩国战争是同族相残的悲剧。意思是，韩国战争是同一个民族的人相互杀害的战争 而且这个战争还不是因为韩国内部的矛盾而爆发的，是因为以美国与苏联为首的强国的相互较量与权力之争而触发的，这牺牲了很多韩国人，韩国的国土也被残暴地破坏了。解放不是韩国靠自己的力量争取来的，而是日本败给联合军带来的结果，所以，解放后，韩国成为强国分割占领的对象。最终，5年后经历了战争之痛。

凄惨的战争记录留在历史资料中，不过，战争给个人带来了多么可怕的痛苦与悲剧，韩国战争期的诗歌也在对此进行佐证。很多诗歌描述了战争的惨状，这些诗歌将人们经受的巨大痛苦 用生动的语言表达了出来。赵芝熏、全凤健、全凤来、金宗三、徐廷柱、赵炳华等诗人 都在韩国战争期留下了诗歌作品。韩国战争期的诗歌不仅描述了战争的惨状与悲剧，如同盛开在痛苦中的花朵，在悲惨的战争中，诗人们还讴歌了希望。因为无论有多绝望，总是存在希望的种子。在这一时期，让人们更痛苦是，因为战争而发生了大规模的离散，即避难。避难是指，为躲避战争而去其他地方。为了在其他地方暂时居住，直到战争的危险消失，人们不得不离开自己的居住地。战争来得很突然，而且在战争初期，南韩连连败退，所以，南韩的居民们为躲避死亡，不得不急急忙忙向南方避难。在这个过程中，很多家庭走散了，甚至都无法知晓对方的生死。数千人的避难民队伍在南韩随处可见，在韩国国土的南端，有个城市叫釜山，现在因国际电影节闻名。涌向南方的避难民再无可去之处，都聚集在釜山，由此形成了避难村，还产生了各种地方文化相互混杂的独特现象。

可怕的战争体验与离散经历向韩国的诗文学抛出实存的问题。通过诗歌，抛出"人是什么？生活是什么？"的疑问。战争结束后，在已经成为废墟的土地上，等待韩国人的是贫穷与饥饿。人是什么？活着又是什么？为了战胜饥饿，为了修复已经成为废墟的家园，韩国人不得不再次与现实做斗争。生与死、贫困与饥饿的问题全部都反映在战争期及其前后时期的诗歌中。

赵芝熏诗人在韩国战争爆发的第二天，1950年6月26日，在高丽大学的教室里讲解诗论时 听到了枪声，他将这个情况描述在诗歌《绝望日记》中。这首诗中有句引用——"不安与存在的意义，你今天才知晓" 诗人并未明示是谁的话，不过，我认为，这可能是让自己思考战争带给人类实存问题的 内心的声音。战争使人思考存在的意义。战争是横扫人类的浩劫，破坏了人类制造的所有东西，抢走了人类享受的生活，在这个悲惨的战争中，诗歌开始思考存在的意义。在同一首诗中，诗人还说："诗歌躲到战云中去"。在充满血腥味的战争中，诗歌能做什么呢？诗歌成不了武器，也变不成食物。诗歌躲到战争的乌云中，就是诗人感受到的不安。经历了韩国战争的诗人通过诗歌揭发战争的悲惨与暴力性，思考人类的实存，并讴歌克服废墟而重新燃起的希望。在韩

国战争中，数百万人牺牲了，南韩遭受的物质损坏超过了4000亿韩元。这个金额是当时韩国国民生产总值的两倍。可以说，经济基础已经完全崩溃。

从1953年签订休战协议到1959年，一般称为重建期或战后恢复期，最重要的事情是解决失去土地的人民的贫困问题。韩国的1950年代就这样被祭献给了战争以及重建战争留下的废墟。得益于这种努力，才能构建起产业化与民主化的基石，得益于克服苦难重新站起的底气，民主主义之花才得以盛开。磨炼越多，克服的意志就越强烈。这一时期的诗歌充分揭示了这一点。

4차시 민주화의 열망과 민중혁명 - 1960년대~1980년대의 시

本次讲座将考察被称为政治动荡期的1960年代到 1980年代的韩国历史及诗歌潮流。韩国的1960年代可以说是始于4·19革命。如果说1919年的3·1运动表达的是在殖民统治下要求民族解放的诉求的话，1960年的4·19革命则是使市民社会扎根，宣告不合理权力终结的历史转换瞬间。这意味着4·19革命的意义可以比肩3·1运动。4·19革命始于对战争重建期腐败的政权与独裁的反抗。

大韩民国首任总统李承晚通过非法改宪，进行了长达12年的执政。大肆进行偷换投票箱、捏造得票数、半公开投票等不正当选举，又暴力镇压了对此进行反抗的民众与舆论。主导4·19革命的民众打出的口号是"李承晚总统下台，打倒1人独裁"谴责3·15不正当选举。3·15选举是当时执政党自由党进行了大规模不正当选举。1959年李承晚推翻其不参选宣言，宣布参加4选，自由党为了让李承晚当选，有组织地进行了不正当选举。当然，国民对此进行了强烈的反抗，谴责不正当选举的示威到处爆发。选举当日3月15日傍晚，谴责不正当选举的示威始于庆尚南道马山地区，随后扩大到全国。

使市民愤怒的直接导火索是金朱烈的死亡事件。高中生金朱烈去马山考试，然后参加了示威，但却失踪了。4月11日，他在马山前海被发现时，眼睛里嵌着催泪弹。这是非常可怕的事情。这件事差点被隐瞒，幸好有位摄影机凭借其机智与能力，对这张照片进行了大力宣传。催泪弹是为镇压示威，警察投掷的装有催泪液的工具，其物质可以引发呕吐、眼泪以及眼睛的疼痛，经常在镇压示威上使用。以前还有个叫作催泪剂的东西，发射催泪剂时，要把它放在像枪一样的发生器里，拉动扳机进行发射。声音很大，被直接射中的话，可能会死亡，和炮弹相似，所以称为催泪弹。催泪弹非常危险，所以警察发射催泪弹时，一般不直接朝人发射，而是朝空中发生。但，金朱烈的眼睛中嵌着催泪弹，这意味着镇压示威的警察朝市民 进行了直线射击，就像枪击一样。不瞄准示威队伍的话，催泪弹是不会嵌入眼睛的。看到一个高中生因为自由党卑鄙残忍的暴力而死亡的面貌，人们如燎原之火般起来反抗。面对市民的大力示威，自由党政权用更大的暴力进行镇压。警察朝示威队伍开枪，示威队伍也进行武装，进而展开了枪击战。

最终，在市民无尽的愤怒与抵抗面前，李承晚于4月26日宣布下台，自由党政权开始

没落。同年，6月15日，第二共和国上台，4·19革命是抵抗腐败、用市民的力量将独裁政权拉下台的民主主义市民革命。虽然痛苦于韩国战争的伤痕，但大韩民国的市民们却因对民主主义的渴望而团结，并用行动实践了其愿望。但遗憾的是，4·19革命后上台的第二共和国并未维持多久。

第二年1961年5月16日，又爆发了颠覆大韩民国历史的事件。即5·16军事政变。5·16军事政变是以朴正熙为首的军部势力夺取政权的事件。仅军人就被动员了几千人。这些军部势力认为，4·19以后的政治混乱与不安是一种类似战时的危险情况，所以，掀起了军事政变，掌握了政权。在照片正中间的人就是主导5·16军事政变的人物朴正熙。朴正熙通过5·16军事政变，掌握了政权，成为第5与第6界大韩民国的总统。通过军事政变掌握政权的军部势力没有正当性，所以，不得不面临抵抗。军事政权为防止反政府势力的扩散，大力实施反共政策，将反政府势力诬陷为共产主义者进行镇压。

1960年代的韩国诗歌表达出对革命的渴望及挫折、代表性诗人是金洙暎。金洙暎诗人被称为革命诗人与爱的诗人。革命与爱，乍一看，这两个单词好像并不匹配。不过，我认为爱的动力存在于革命的深处。金洙暎诗人在其诗歌中叙述了对独裁政权的批判与革命的喜悦以及革命所憧憬的希望，同时，还非常成功地描述出革命的挫折以及其中个人感受到的耻辱。金洙暎诗人在诗歌《蓝天》中问道：“自由是怎么掺入了血腥味？革命为何是孤独的？为何必须是孤独的？”当时很多诗人应该都是这个心情。自由不是天赋的，而是需要通过流血牺牲才能获得的，通过韩国人经历的历史磨炼，我们已经知道了这一点。

4·19革命催生了在韩国诗文学史上被称为“参与诗”的诗歌倾向。参与诗迎合时代的要求，关注现实问题，认为诗歌应该起到现实变革与批评的作用。这是一种将重心放在诗歌作用论上的视角。不过，与韩国诗文学史上1920—1930年代的卡普诗等极端的阶级主义抵抗诗歌不同的是，1960年代与1970年代的参与诗的观念性没那么强，没有那么明显地提出理念与主张。参与诗还追求美学性，关注人类具体的生活与权利，这与卡普诗也不同。参与诗主张诗歌应该参与现实，不过纯粹诗歌则更重视诗歌的美学纯粹性。

参与诗与纯粹诗，历史又一次反复了。在1960与1970年代，现实指向性的诗歌倾向参与诗与追求美学倾向的纯粹诗共存。这与以卡普为中心的理念指向性诗歌和追求纯粹性的纯粹诗相对立的1920,1930年代的韩国诗文学情况很相似。不过，这不应该理解为是极端的冲突与对立，而应该理解为是两个相反的倾向围绕着韩国诗歌的方向性与作用，展开的摸索与探索。将参与诗与纯粹诗用二分法的对立结构进行把握的分派

视角 事实上是理念对立历史的残余。

1960年代的诗歌，是不可以仅用参与与纯粹的对立进行说明的。另一方面，对韩国现代史因为理念的对立而引发的混乱与牺牲开始反思。脱离理念的束缚，通过多样的诗歌实验来扩大诗歌领域，也发生在1960年代。1960年代是韩国诗坛正式展开诗文学多样化的时期，也是通过形式实验进行摸索的时期。

通过5·16军事政变而掌握政权的朴正熙当选了第5界总统后又连任了第6界总统，第3共和国的宪法上明确规定，总统可以连任1界。但，朴正熙于1971年参加了第7界总统的选举。当时的对手是金大中，金大中的国民支持率很高，已经威胁到了朴正熙。无论如何，由第7界总统选举的结果来看，朴正熙以微弱优势压制住金大中而当选，但不正当选举疑惑与抵制从未停止。因为他的当选违反了宪法。朴正熙当选后修改了大韩民国宪法。修改后的宪法就是1972年10月的维新宪法。这也被称为10月维新。维新的意思是把旧的东西改造成新的，但朴正熙政权的维新改宪目的却是朴正熙的独裁政治与长期执政，强化了总统的权限，但限制了国民的基本权利。总统直接选举制与限制连任也被删除掉了。维新宪法就是个恶法吧。朴正熙通过间接选举，当选为第8界与第9界总统，反对维新宪法的运动当然越来越强烈。此时，因为国家主导的产业化，国家整体的财富增加了，但，劳动榨取、劳动镇压、贫富差距却深化了，由此，国民的生活越来越不安。军事独裁的镇压与腐败越严重，国民对民主主义的渴望就越大。

在军事独裁政权的暴政下呻吟的1970年代韩国诗歌是何面貌呢？以民众意识的成长为基础的民众诗歌的登场 是1970年代韩国诗文学最大的特征。1970年代开始流行的民众诗与现实主义诗歌 是1970年代民族文学论的发展概念——民众文学的一个体裁，也是从1960年代的参与诗歌中发展出来的新形态。代表性民众诗人有金芝河与申庚林。金芝河的《五贼》与申庚林的《农舞》用讽刺的手法揭露了军事独裁政权的腐败，写实地描述出民众生活的悲欢。1970年代的民众诗歌传达出控诉独裁政权、抵抗不合理的、克服现实的意志，刻画出民众痛苦的现实，同时又获得了美学秩序，可以说打开了韩国现代诗歌的新纪元。

朴正熙军事政权于1979年突然落下帷幕，因为1979年10月26日，朴正熙被中央情报部长金载奎枪击身亡。这个事件被称为10·26事件或朴正熙总统遇袭事件。因为朴正熙的死亡，当时的国务总理崔圭夏经过总统权限代行，就任第10界总统。但在就任一个多月后的12月12日，以全斗焕为中心的 军部内私人团体——统一会势力掀起军事政变，掌握了实权。为与5·16军势力相区分，他们被称为新军部。反对新军部的国民抵抗正式开始于1980年5月的学生示威。对此，全斗焕于1980年5月17日颁布了非常戒严令，动员戒严军，残忍地镇压了反对势力。戒严令颁布的第二天，5月18日，伞兵

部队无差别地朝光州市民开枪。应该保护国民的国家向国民开枪并挥起棍棒，并进行了残忍的拷问与施暴。市民也组织市民军抵抗戒严军。直到现在，光州的很多地方都留有戒严军从直升机或街道上发射的子弹痕迹。当时，因为韩国的言论控制，这种残忍的事态并未被知晓。幸亏一个外国记者冒着生命危险进行采访，当时的照片才被世人知晓。看到那么残忍的场面，我也感到非常窒息。踩着这些无辜牺牲的尸骨，全斗焕成为总统。

生活在1980年代的诗人们也无法脱离5·18。因为诗人不是与世隔绝的存在。1980年代的诗歌，从内容上看，民众指向的性格是主流，从形式上看，解构的、抵抗的性格更明显。朴劳解、白茂山、金南柱、金思寅、金正焕、李殷凤等诗人便创作出1980年代民众指向性或现实指向的诗歌。高呼打倒独裁，揭露资本主义问题的现实指向性诗歌最活跃的时期就是1980年代。此外，崇尚现代性的诗歌与崇尚艺术性的诗歌也使1980年代成为诗歌的时代。1980年代把很多青年变成诗人，也是一个很多人阅读诗歌的时代。在最残酷的暴力时代，诗歌却如此繁荣，这意味着什么呢？金南柱诗人在诗歌《因为随风飘落的草叶，不要讴歌五月》中说："不要讴歌五月，因为随风而起的草叶，在抵抗屠杀草叶的血之战斗上，那不是合适的诗歌手法，在血的屠杀与武器的抵抗之间，没有抒情的位置，也没有抒情的资格。"

对诗人而言，用美好的抒情手法讴歌五月，好像是一件难以忍受的事情。在血的屠杀与抵抗的战斗中，诗人觉得抒情是多么无力与虚假呢？在时代的要求下，诗歌应该成为枪，成为刀，成为发声的阵地，有时还应该成为抚慰之手。恰如1980年代的韩国诗歌那样。

5차시 평화와 정의를 향하여 - 1990년대와 2000년대 이후의 시

本次讲座将考察1990年代与2000年代以后韩国现代史的主要事件与 诗歌文学的潮流。

1979年, 通过12·12军事政变掌握政权的新军部政权镇压了民主化示威。镇压越严重, 以大学生为中心的民众示威就越激烈。1980年代, 韩国大学周边的大路上, 布满了镇压民主化示威的燃烧瓶与催泪弹。1987年, 积极参加民主化运动的首尔大学生朴钟哲 遭受治安本部对共分室检察官的残忍水刑后死亡。新军部想隐瞒这件事情, 但这件事还是被公开了。新军部捏造事件的真伪, 妄图减少影响。这个事件在大韩民国留下了那句有名的话——"啪, 拍了一下桌子, 哎呀, 他死了"。这个荒唐的欺骗行为被当时的中央大学医院医生吴演相揭穿, 谎言被世人所知, 国民们极其愤怒。这件事成为6·10民主抗争的导火线。6·10抗争也被称为6月抗争。这一时期, 很多大学生都失去了生命或因拷问留下伤痕。2017年上映的电影《1987》描述的就是朴钟哲拷问致死事件。看过这个电影后, 大家会感觉到, 推翻巨大独裁政权的 民众的力量虽然小, 但却蕴含着巨大的正义。

6月抗争成为民主主义理念与制度扎根的契机, 也成为韩国市民运动得以大力发展的基础。6月民主抗争后, 全斗焕的军事独裁终结了, 被朴正熙废止的总统直接选举制重新复活。在同年12月16日进行的第13代总统选举中, 卢泰愚当选为总统。虽然付出了很多牺牲, 终结了军事独裁, 但革命的中心势力民主阵营却未能实现统合, 所以, 当时新军部出身的总统合法地掌握了政权。这一时期, 韩国举办了1988首尔奥运会, 短时间内迅速克服了战争的废墟, 并向世界宣告实现了"汉江奇迹"。汉江奇迹是指, 韩国战争以后, 韩国实现的超高速增长与经济发展。但, 这种超高速增长却伴随着普通人的牺牲, 这一点我们不能忘记。

韩国现在跻身为文化强国, 是金大中政府打下了基础。金大自在朴正熙与新军部政权下, 遭受了入狱、绑架、差点被杀、软禁在家等 残酷的政治打压, 终于在1997年当选为总统。金大中总统在任期间, 制定文化发展的政策, 为今天大韩民国的发展奠定了重要的基础。他因提升人权、发展南北关系等功劳, 于2000年获得诺贝尔和平奖。特别是2000年6月15日南北韩首脑在分断后第一次会面, 此时发表的《南北共同宣言》意义重大。从日帝强占期到解放, 又经历了韩国战争与分断, 回顾在战争中互相敌视的南北韩历史, 这个场面了超越政治意义, 带来

了让人心头一热的激动。我们来看一下当时的场面。

影像里说，这是我们民族的历史性瞬间。当时很多国民通过直播，见证了这个历史。独裁政权的终结，最终找回的民主主义，对克服分断与南北统一的期待，1990年代的韩国诗歌暂时放下了长期背负的历史与时代使命，从集体性转换到个人性，从政治性转换到个人的实存与文化体验。特别是对个人文化生活的关注成为新文学探索的主题。对死亡与消亡的挖掘、对都市日常的探究、身体试学、女性主义诗学、生态学的想象力与对虚拟世界的关注等，以环境与文化变化为基础的多样诗歌体验 使韩国诗坛变得丰富多彩。

韩国的2000年代始于高中毕业的人权辩护律师出身的卢武铉当选为总统而掀起的波澜。但，卢武铉总统在卸任后遭受了下一届政府的报复性调查与受贿丑闻，2009年，发展成前任总统自杀的政治悲剧。当时的总统李明博后来承认了收受贿赂、贪污受贿等嫌疑，卸任后被判刑并服刑。下届总统朴槿惠未能积极应对中东呼吸综合症事态、世越号惨案国家灾难，密友政治问题暴露后，舆论极度恶化，2017年被弹劾。由此，成为大韩民国历史上首任女性总统与被弹劾的总统，集荣誉与耻辱于一身。2014年4月16日发生的世越号沉没事故给朴槿惠政府带来危机。载着集体去休学旅行的檀原高中的学生与乘客476人驶向济州岛的世越号 在全罗南道珍岛郡前海沉没，造成304人死亡。这次事件不是单纯的海难事件，它集中反映出国家系统的缺失与不负责，以及事故发生后不合理的对应等韩国社会性问题，作为21世纪给大韩民国社会带来巨大影响的惨案，世越号事件给韩国人留下了无法抹去的创伤。304名死者中，檀原高中的学生超过了200人。我也忘不掉在新闻中看到那个场面所受到的冲击。通过直播看到无数学生与乘客慢慢沉入水底，那个冲击如何能用语言表达呢？对大韩民国国民而言，世越号惨案是无法用语言描述的冲击与悲伤，不过，那个感情立刻成为愤怒。因为在事故原因、救助过程、事故后的收拾等多元方面，都没有遵守最基本的规则，社会安全网与国家系统未能起到作用，这些事实慢慢浮出水面。

沉入海底的世越号在朴槿惠被罢免后的2017年才被捞起，3年后才重新出现在我们面前。国家权力使国民陷入悲剧时、历史把个人推向地狱时，人们反而更加团结，汇集微小的力量，创造出巨大的波澜，世越号的创伤依然没有消失，韩国人不断努力用自发的行动 克服集体性创伤，进而使社会变得更加美好，这个努力现在仍在继续。其中之一便是文人们组织的、在世越号沉没的时刻 每月举行一次的304朗读会。304是世越号牺牲者的数量。我也曾在2017年11月，作为朗读者参加过304朗读会并朗读了诗歌。开始时晴朗的天空在沉没时刻，开始朗诵会时，突然电闪雷鸣下起大雨，所有人都变得很肃静，那个记忆现在仍历历在目。

此外，很多文人致力于悼念、共感与治愈。世越号悼念诗集《我们都是世越号》首先得以出版，诗人们化身成檀原高中牺牲的学生而写的生日诗集《妈妈，是我》3周年悼念诗集《回到花季》等悼念诗集得到出版。此外，还出版了很多悼念诗集。单独出版世越号悼念诗集《我的

痛苦无法成为大海里的一滴空气》的方民镐诗人说：“世越号惨案后，我每天都无法安心入睡，每天都充满了悲伤、怨恨、罪恶感以及绝望感。” 悲伤、愤怒、罪责感、绝望感，这些感情是目睹世越号惨案的韩国人共同的感受，不过，诗人们背负着用诗歌对此进行记录、证明、共感以及克服的时代责任。抵抗殖民统治、反抗独裁政权的诗歌之历史任务

在2000年以后，变身为美学的政治性或感觉的连带等新的形态。在2000年代韩国诗坛展开的诗歌政治性论争是对诗歌是否可以同时具备美学性与政治性的疑问，也是一种苦闷。重新提起的诗歌政治性始于美学政治性或诗歌与政治的融合。我们有必要思考一下，诗歌与政治是不可以互相介入的领域，我们是从何时才这么认为的？当然，我们无法否认以前有的诗歌沦为口号，成为了政治理念的囚徒。但，在每个历史的重要时刻，证明、重现历史使人人与人形成共感与连带的也是诗歌，这一点，我们也应该记住。2000年代，韩国诗坛提出诗歌政治性谈论，其主要理论基础是 雅克·朗西埃的哲学概念“感性分配”，这个概念认为：文学与艺术的政治性从本质上来说，始终存在于美学内部。他说，艺术不是独立的，总是与政治问题相连。意思是，即使不是有意的，从本质上看，艺术就带有这种属性。所以，把属于感觉经验的语言与文字分配给谁，这个问题 肯定是一个带有极端政治性的问题。在殖民统治末期，日帝为何管控、抹杀韩国的语言与文学？军事独裁政权为何限制表达的自由、遮蔽民众的耳目？这句话使我们思考这些根本性的原因。

我们来回顾一下刚开始的内容吧。诗歌验证历史，历史通过诗歌得到重现。虽然经历了无数的磨练，在每个重要时刻都依靠群众的力量重新站起来、克服苦难的韩国现代史 与韩国诗文学史无异。韩国现代诗歌与韩国现代史同步蓬勃发展，希望大家通过本讲座能够遇见韩国现代诗歌那炽热又充满活力的世界。谢谢！